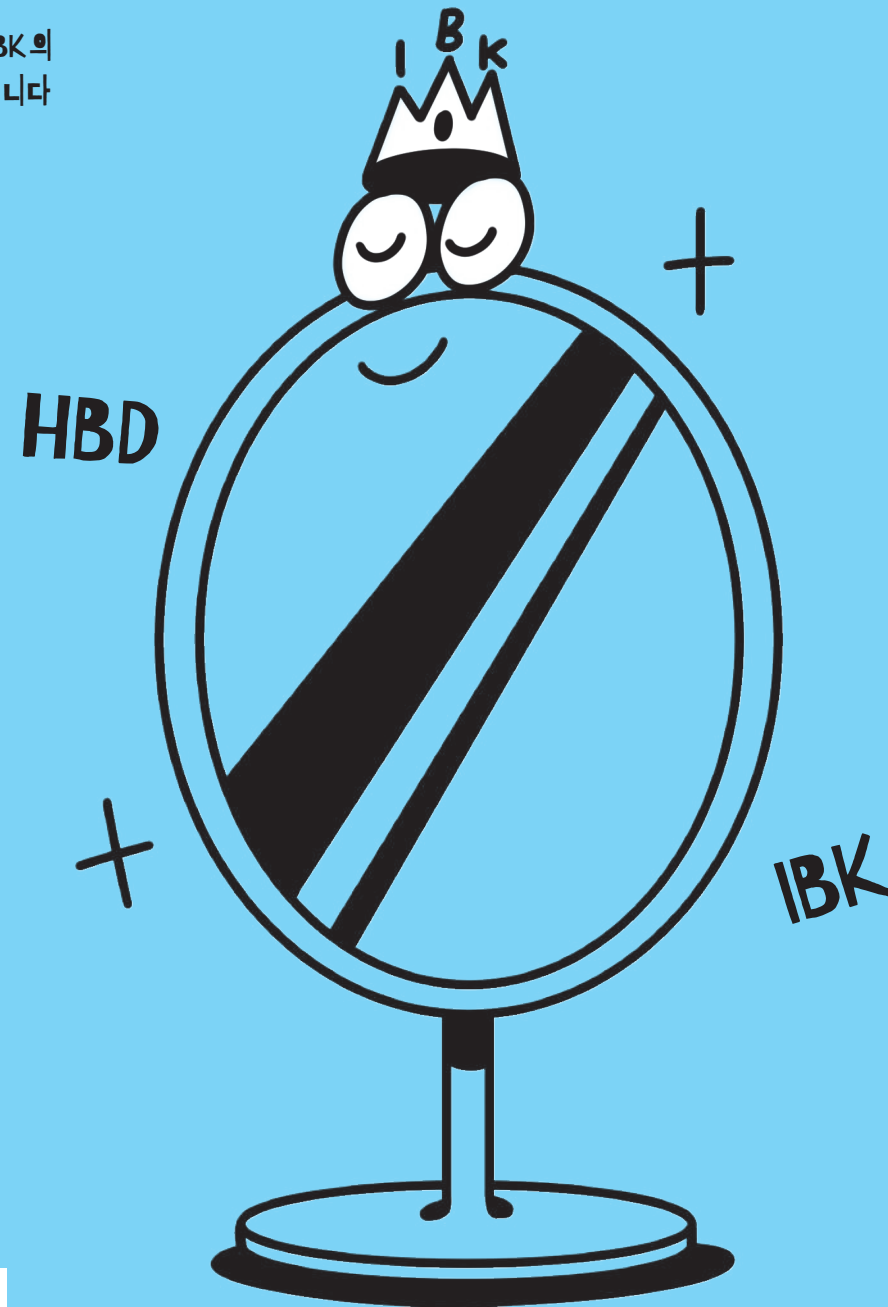


2024.
August
vol.468

—
우리는 IBK의
자부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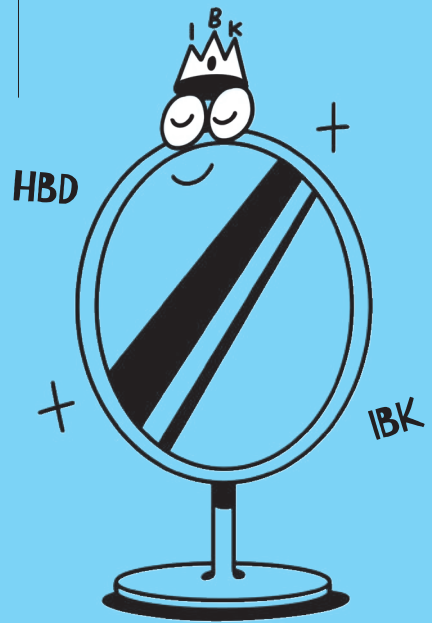
08

자부심



with IBK
IBK MAGAZINE

Pride



자신을 믿고
나아갈 때

더 큰 세상이
펼쳐질 거야



나를 믿고,
단단하고 당당하게

IBK가 존재하는 이유

Contents

2024. August
vol.468

내면의 힘(력)을 더하고
서로의 마음(심)을 나누는
IBK 시너지, 일곱 번째

자부심



IBK사보를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with IBK
IBK MAGAZINE

발행일 | 2024년 8월 5일
발행인 | 은행장 김성태
편집인 | 김태경
편집위원 | 이명환, 정누리
발행처 | 브랜드전략부
편집·디자인 | 더에이치(주)

* 외부 필자의 원고는 <with IBK>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with IBK>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63주년 기념사

도전과 혁신의 IBK정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의 길로 나아갑시다

14

63주년 기념식

IBK 가치금융의 빛나는 미래,
초일류 금융그룹에 한 걸음 더!

18

63주년 홍보영상

고객을 위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IBK기업은행

22

숫자로 보는 IBK

내일을 위한
63년의 기록

24

너의 생각을 클릭

IBK인이라 행복했던 순간부터
가장 뿌듯했던 순간까지!

28

63주년 6자토크

IBK기업은행은
나에게 ○○○○○○다!

34

63주년 축하메시지

IBK기업은행 직원들의 축하메시지
63번째 은행, 언주로지점 축하메시지

44

63주년 IBK기념고사

IBK기업은행 창립 63주년
기념고사 답안지

48

에세이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반드시 할 수 있다

50

IBK 양케이트

난 '내'게 반했어!
스스로 꿈아보는 나만의 매력 포인트는?

58

타인의 생각

오만한, 가짜 자부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64

IBK가 만나다

나를 인지도고 직시할 때 생기는 용기
오상진 아나운서

70

체크리스트

나를 제일 사랑하고 싶다면
자부심 테스트

72

IBK쓰끼

국물이 끝~내줘요! 강원도 황태의 맛
⑧ 강원도 편_산촌

78

그곳에 가면(국내)

천연기념물 당산 숲과 낙조가 아름다운 섬
충남 외연도

84

그곳에 가면(해외)

섬 다이빙과 해변, 라군의 하모니
태국 꼬창

90

IBK산 ⑧

산이라서 좋고, 함께라서 행복한
'금지산악회'의 남도 백운산

98

IBK버킷리스트

오늘은 내가 파티시에!
내 손으로 만들어 더 다디단 추억

104

IBK동호동락

바다를 끌어안을 때 보이는 것들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IBK UTS'

110

그때 그날 한 컷

8월에
일어난 이야기

112

헬스 케어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
숙면 취하는 방법은?

114

요즘, 시선

매일 똑같은 회식은 이제 그만!
달라진 회식 풍경

118

IBK 히어로

믿음에 믿음을 더해 탄탄한 미래를
신탁부

128

히든챔피언

커피향으로 세상을 풍부하게 만든다
(주)카페뮤제오 서동의 대표

134

IBK업글인

노래로 쓰는
오늘의 기억

140

창공, 날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IBK창공 기업
비주얼, 플레이레전드, 배터플라이, 지엔에이컴퍼니

146

잡학 사전

위잉-
모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148

우리말 한 걸음

지금 그 자리엔 '히'가 아닌 '이'를 넣어야 해요

150

HOT Issue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도시동심(都市童心), 김우진의 유토피아

152

IBK뉴스

IBK기업은행
주요 소식

154

이달의 이벤트

다른 그림 찾기/
표지 캐릭터를 찾아라

157

부록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여행준비물 체크리스트!

63th

Congratulations IBK Birthday

반짝이는 햇살과
질은 녹음이 반겨주는 8월,
IBK기업은행이
창립 63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63년간, IBK기업은행은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으로
금융 서비스를 선도해 왔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도전과 혁신의 IBK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금융 그룹으로 발전하고,
고객과 직원, 주주 모두의 가치를 높이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한 63년을 되돌아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IBK인들.
그들의 온화하고도 단단한 다짐을 들어봤습니다.

도전과 혁신의 IBK정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의 길로 나아갑시다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을 목표로 언제나 고객과 발맞추는 IBK기업은행.
고객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IBK기업은행은
IBK만의 방식을 활용해 가치금융에 더 큰 힘을 실어나가는 중이다.
그 중심에는 ‘도전과 혁신’이라는 IBK정신이 깔려있다.

IBK 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기업은행의 예순세 번째 창립기념일입니다. 과거 작지만 강한 은행을 지향하던 우리가 이제는 총자산 500조 원 시대를 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행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튼튼한 초석을 만들어주신 선배님들을 비롯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은행 발전과 직원 행복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는 노동조합 김형선 위원장님과 간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관심과 믿음으로 저희 기업은행을 성원해 주신 200만 기업고객과 1,700만 개인고객, 그리고 정부를 비롯한 주주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BK 성장의 역사와 위상

임직원 여러분! 자본금 2억 원, 점포 31개로 시작한 기업은행은 지난 60여 년간 기적과도 같은 성장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기업은행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역할을 달리하고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하면서 다른 은행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지원을 늘렸고 위기 때마다 금융의 안전판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상업성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공공적 성격의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이는 다시 IBK의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내외 700여 개 점포와 9개 자회사를 갖춘 글로벌 100대 은행, 총자산 500조 원 금융그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은행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업모델의 우수성을 성과로서 입증했고, 중소기업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위대한 은행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시장을 굳건히 선도하였습니다. 정책영역에서는, 벤처자회사 설립, 4조 원 규모의 중기 M&A 지원 패키지 마련, IBK창공의 국내외 확장 등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강화하였고, 금리감면 패키지 같은 위기극복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가동하였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디지털로 기업의 대출신청 문턱을 없앤 대출통로BOX를 시장에 안착시키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에 대응하고자 폴란드 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 IBK 유럽벨트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ESG 선도은행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금융권 최초 RE100펀드 주선,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 양성채권 발행, ESG컨설팅 최대 지원 등, 지속가능금융 분야에서 국내 금융권 최초 및



앞으로도 우리가
가치금융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간다면
고객과 함께 더
큰 성장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 지원의 수식어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용의 경계를 IBK 방식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비롯해 다문화 구성원, 사회취약계층 등 사회공헌 대상을 확대함은 물론이고, 문화예술 테마를 예술인재육성, 산업단지 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소외된 계층을 세심히 보듬었습니다. 직원 자긍심 고취와 인사혁신, 불필요한 일 없애기 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전·혁신 RISE IBK**도 전사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성과 및 노력에 힘입어 우리는 **대한민국 1등 중기금융**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IBK**로 발돋움 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경영환경

임직원 여러분! 우리가 거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영광이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밀려오는 많은 도전과 위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경쟁은행들은 큰 자본력을 바탕으로 중기금융 분야에 가격경쟁을 강하게 펼치며 우리의 주력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AI 등 디지털 신기술로 경쟁우위를 가져가려는 경쟁자들이 금융의 디지털화를 더욱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 장기화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부실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구조 변화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활로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내외 구조적인 환경변화는 은행의 역할과 성장에 큰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BK 가치금융 실현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자랑스런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이런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응해 **가치금융**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의 비전을 향해 보다 견고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가치금융 실현**을 향한 변화의 움직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금의 흐름에 힘을 더 강하게 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고객가치를 높이고, 고객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IBK 성과는 모두 우리를 믿고 거래해 준 고객이 있었기 때문이고, 고객의 가치가 커지면서 관련된 금융의 가치 또한 올랐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객기반 확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여 드려야 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최적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혁신적으로 도전함은 물론이고, 고객니즈를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또, 그 과정은 데이터로 축적·관리하고 이를 개발과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가야 합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것만큼 이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고객의 전반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 고객에게 최적의 이익이 돌아가고 편리한 이용도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고객이 느끼는 효용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 드릴 내용은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성장사다리 역할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많은 기업이 고통받고 있고 특히 대응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큼니다.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IBK 소상공인 가치 금융 상생펀드 등 상생금융 사업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소상공인이 시장에 안정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스타트업이 중소·중견을 넘어 대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의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힘을 보태야 합니다. 모험자본, 벤처대출 등 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공간, 컨설팅, IR 등 비금융서비스도 촘촘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유망기업의 성장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술력과 잠재력에 중점을 둔 심사체계 구축으로 유망기업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는 한편, 국가 성장정책과 연계해서 첨단전략산업과 혁신분야 영위업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나아가, M&A나 기업승계 지원을 강화해 가치 있는 기업의 소멸을 방지하고 재도약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수출금융 상품 라인업 강화와 판로개척 지원 등 기업에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선진국 시장에서는 글로벌 금융기관과 공조해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현지 시장 개척과 투자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신흥국 시장에서는 베트남 법인 전환, 폴란드 법인 설립 등 해외 네트워크를 지속 확충해 현지 진출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과제 해결에 믿음직한 조력자가 돼야 합니다. 인재채용, ESG 준수, 디지털화, 산업재해 예방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기업 니즈에 맞게 발전시키고, 기업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더욱 고도화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은 성장하는 기업들로부터 나옵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유망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성장하는데 진실된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조 드릴 내용은 혁신에 기반해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디지털과 금융의 융합이 개인을 넘어 기업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 금융에서 제2, 제3의 대출통로BOX가 꾸준히 나오며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열세에 놓인 사업 부문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디지털 격차가 있다면 이를 신속히 해소하고, 창의적이고 고객 친화적인 디지털 신서비스를 끊임없이 장착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디지털 혁신도 안정적인 IT 운영이 전제돼야 가능합니다. 특히, 외부 망과의 상호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철저한 보안체계 구축과 외부 파트너 관리 등 다층적인 IT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강조 드릴 내용은 튼튼한 은행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신건전성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건전성 관리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자산의 부실화를 최대한 방어해야 하고, 외부 정책기관과의 협업 등 리스크를 슬라이딩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또, 최근 시행한 新빅데이터모형과 같이 시스템에 의한 우량기업 선별능력을 제고하고 이를 고객 유치와 관리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프라이싱 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기여도가 높은 고객에게 우대 혜택을 드리고 손실이 발생하는 고객의 손실을 줄여나가는 것은 이익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종합적인 거래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고객 프라이싱 체계를 구축해 이런 원칙을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창끝도 튼튼한 창자루가 없으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듯이, 우리의 핵심역량인 중기금융도 가격경쟁력이 견고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의 가격경쟁력은 결국 자본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업무 전반에 수익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쏠 직원이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여러 분야에서 영업동력의 회복세가 감지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강조 드릴 내용은 개인고객 기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00만 개인고객을 통해 우리의 핵심역량인 중기금융을 보완하고 유니버설 बैं킹으로서의 종합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고객뿐만 아니라 개인고객의 가치와 편익을 높이기 위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서비스도 혁신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군인과 중소기업 CEO 고객 등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고객층에 대한 차별화된 가치 제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기업과 개인고객 모두에게 혁신적인 방법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가장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은행이 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 드릴 내용은 반듯한 금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고객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책무구조도 등 내부통제 사업 추진 시에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쏠 직원의 의식 개선이 탄탄하게 밑바탕 돼야 합니다. 업무에 있어 사적이익 추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원칙과 기준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듯한 금융 실천의 또 다른 축은 IBK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소외됨 없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포용금융을 중소기업 지원과 접목해 기업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용의 경계를 외국인 근로자와 영세취약기업 등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IBK 임직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기업은 행은 위기에 처한 기업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 있는 기업이라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이 되며 고객을 위한 진심을 실천해 왔습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는 매 순간 **도전과 혁신의 IBK정신**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여기까지 왔고, 고객과 함께 총자산 500조 원의 금융그룹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가치금융**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간다면 고객과 함께 더 큰 성장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객 가치 제고를 향한 진심을 실천하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의 비전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인 IBK를 더욱 빛나게 발전시켜 나가갑시다.** 그 과정에서 조직 내 창의와 활력이 넘치고 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에도 은 행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BK기업은행 은행장

김성태

IBK 가치금융의 빛나는 미래, 초일류 금융그룹에 한 걸음 더!



올해로 창립 63주년을 맞은 IBK기업은행이 8월 1일 서울 을지로 본점 대강당에서 김성태 은행장과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은행장은 고객과 함께 성장해온 IBK기업은행의 역사와 그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성장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다

중소기업 위기 극복과 재도약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고객가치 제고를 향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지향하는 IBK기업은행이 창립 63주년을 맞았다. 김성태 은행장은 기념사에서 “IBK기업은행은 공공성과 상업성을 갖춘 유례없는 사업모델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해오며 총 자산 500조 원의 금융그룹으로 거듭났다”라며 IBK기업은행의 성장에 변함없이 함께한 고객과 주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다. 이어 중소기업금융 초격차 창출, ESG 금융을 선도하며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준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고객가치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중기금융 경쟁 심화와 디지털 신기술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IBK기업은행은 모든 일에 고객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가치 금융에 힘을 더 강하게 실어나가고 있다. 이에 김성태 은행장은 “국가와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은 성장하는 기업들로부터 나온다”라며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은 물론,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유망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성장하는데 진실된 뒷받침 역할을 수행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 튼튼한 은행으로 도약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이라는 목표를 위해 디지털을 비롯해 전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이뤄져야 하는 때인 만큼 김성태 은행장은 “금융사고 발생 및 불안전판매 예방에 최선을 다해 고객신뢰를 확보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영세·취약 기업 지원 등 포용금융을 중소기업 지원과 접목함으로써 IBK 방식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전과 혁신의 IBK정신을 통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 지금의 자리까지 온 만큼 앞으로도 가치금융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고객과 함께 더 큰 성장의 기적을 이뤄내자”라고 말했다.



#도약



2024년 IBK브랜드 홍보영상 공개!

고객을 위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IBK기업은행

63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가치금융 경영방향을 담은 브랜드 스토리와 주요사업을 대내외 전파하기 위해 2024년 공식 브랜드 홍보영상이 제작됐다. 고객을 위해 거꾸로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IBK기업은행의 철학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는 ‘우산’ 오브제를 활용하여 전달한다.



#맞춤형지원



#고객가치제고



#Magic Umbrel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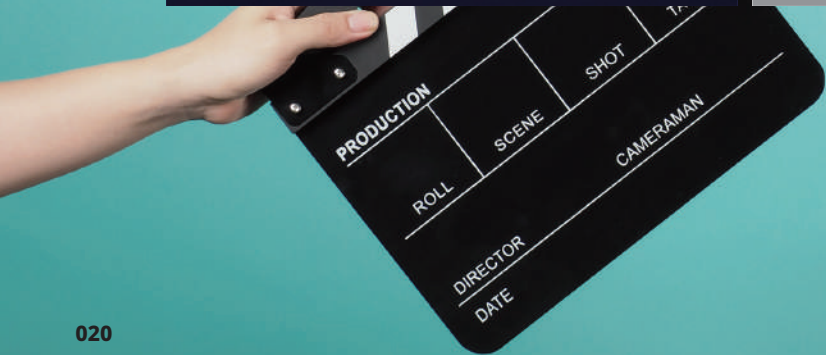
#기업성장사다리



#1 기업에 실질적 지원 펼치는 IBK

‘2024 IBK 홍보영상’은 도심을 떠다니는 우산으로 시작된다. 하늘을 두둥실 떠다니는 우산들처럼 세상에는 고객과 기업의 우산이 되어주겠다는 은행들이 셀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IBK기업은행이 되고 싶은 우산은 조금 특별하다. 바로 거꾸로 된 ‘Magic Umbrella’로, 천편일률적인 서비스가 아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고객과 기업의 마음을 꿰뚫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고객을 생각하는 IBK기업은행의 따뜻한 마음처럼 손에 살포시 내려앉은 우산의 모습에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힘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IBK기업은행의 마음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IBK기업은행은 최근 IBK벤처투자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모험자본 2.5조 원을 공급 중이다. 또 IBK기업은행은 스타트업 등 꿈에 도전하는 모험가들 또한 응원, IBK창공을 통해 872개 혁신창업기업을 육성했고 금융권 유일의 중소기업 M&A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러한 지원처럼 영상에는 IBK기업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고객의 꿈이 언제 어디서든 기업은행을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녹여냈다.



#2 고객을 위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IBK

올해로 창립 63주년을 맞은 IBK기업은행은 오랜 기간 씬 없이 달려온 만큼 석유 파동과 IMF 외환위기, 코로나19 등 많은 위기를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 좌절하기보단 은행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경제 상황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IBK기업은행의 지원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 위기 극복 견인, 대출 공급 확대, 피해기업 집중지원 등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금리감면 패키지를 진행해 과거에도, 지금도 고객에게 흔들림 없는 우산이 되어주고 있다. 덕분에 고객과 기업 또한 IBK기업은행의 방공호 삼아 자신들의 꿈에 계속해서 펼쳐 나가는 중이다.

IBK기업은행의 지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항상 ‘고객을 위해 또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기업들이 더욱더 탄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에 ‘IBK하남 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해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회사와 인재들이 빠르게 매칭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문 취업포털 i-ONE job을 운영 중이다. 또 고금리 속에서 방문 없이 신청하는 대출 통로 BOX 서비스를 마련했으며,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실시간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객을 위한 진심을 영상에도 생생하게 담아냈다.

#3 진정성 있는, 신뢰 가는, 진취적인 IBK

해외 14곳에 본부와 지점을 둔 IBK기업은행은 다문화 가정 지원에도 온 정성을 기울인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큰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IBK 모두다 스쿨콘서트’를 운영 중이며, 신진작가 지원의 일환으로 IBK기업은행 본사 로비를 활용한 ‘IBK 아트 스테이션 2024’도 개최했다. 특히, 영상 속에서 펜으로 변한 우산이 그림을 그리고 본사 건물을 꾸미는 등 IBK기업은행의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의의를 담아내 감동을 한층 더 높게 끌어올렸다.

또 63년 동안 고객을 위해 남다른 혁신을 해온 IBK기업은행의 모습을 하늘 위를 떠다니는 우산에서 고래로 형상화해 더 멀리 더 너른 바다를 향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7년 연속 세계 100대 은행, 글로벌 생산 거점 중심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금융전문지 선정 ‘대한민국 최고의 중소기업 은행상 3관왕 수상’ 등, 자산규모 500조 원으로 성장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초일류 은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IBK기업은행. 소중한 고객의 가치가 더 넓은 세상과 만나 우산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영상에 고스란히 녹여낸 만큼 앞으로의 활동에 더 큰 기대감이 쏠린다.

내일을 위한 63년의 기록



IBK기업은행이 창립 63주년을 맞이했다.
쉽없이 달려온 IBK기업은행의 성과를
한눈에 들여다보자.

63

IBK 창립 63주년

IBK기업은행 | 촘촘한 점포망을 구축하며 글로벌 초일류 은행에 도전

임직원('23년)
13,722 명



영업점 수
625 개 / 전국 영업점

60 개 / 국외

18 개 / WM센터



금융소비자 만족 강화

18 년 연속

KSQI
(서비스 품질지수)
우수 콜센터 선정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최고 수준의 서비스 품질 달성



IBK창공 기업

872 개

혁신 창업기업
발굴·육성

IBK창공을 통해
금융권 최초, 창업 전 과정 및
해외 진출 집중 지원
(*24년 6월 말 기준)



중소금융 주요성과 | 맞춤형 금융 지원으로 중소기업 복합위기 극복 지원(*23년 말 기준)



중소기업대출
232 조 원 돌파



중소기업 대출 점유비
23.2 %



기술금융 대출 점유비
43.0 %



동산담보 대출 점유비
39.4 %



신용 중소기업 지원
53.5 %

사회공헌 |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에게 희귀, 난치·중증질환 치료비 및 고등학생·대학생 장학금 지원

누적 치료비

3,659 명 대상
158 억 원



누적 장학금

12,829 명 대상
211 억 원



사회복지시설 정기후원

249 개 시설
874 백만 원



릴레이 헌혈 캠페인

500 매
헌혈증 기부



영업점 관내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금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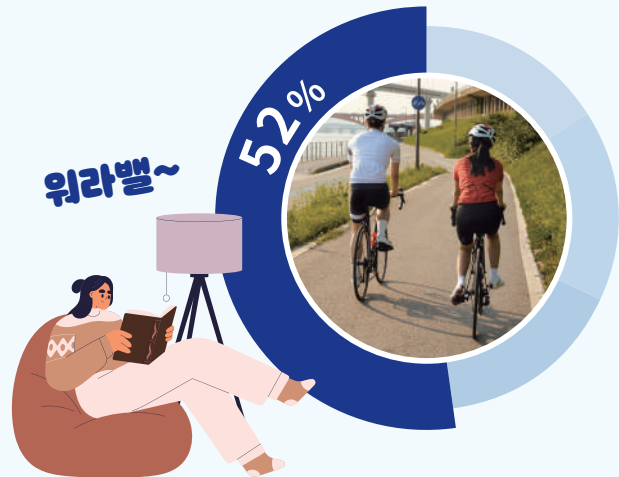
코로나19로 부족한 혈액 공급을 돕고자 헌혈 캠페인을
통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기부

IBK인이라 행복했던 순간부터 가장 뿌듯했던 순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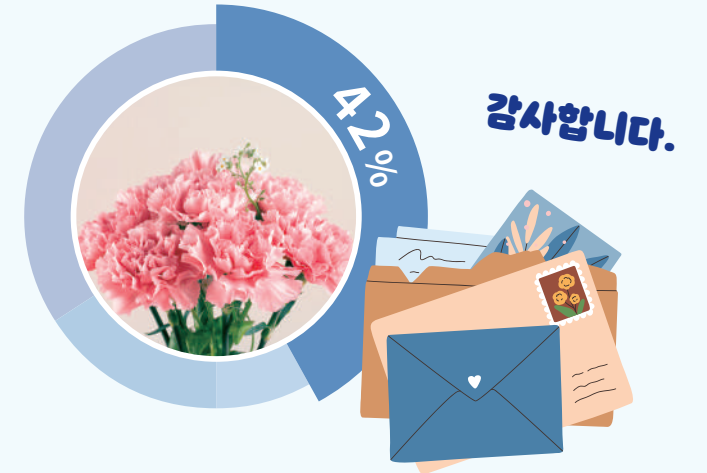
행복은 상대적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다른 이들보다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작은 것 하나에 감동하고, 순간순간을 행복으로 보내고 있는 IBK인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봤다.

Q.1 현재 업무에 만족하는 이유는?



- ① 업무에 대한 비전이 뚜렷해서 16%
- ② 입행 전부터 꿈꾸던 일이라서 16%
- ③ 매일 새로운 업무가 흥미로워서 16%
- ④ 워라벨을 지킬 수 있어서 52%

Q.2 IBK인이라 행복한 순간은?



- ① 고객이 감사 인사를 건넬 때 42%
- ② 제안한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8%
- ③ TV 등에 IBK기업은행 소식이 나올 때 16%
- ④ 사내 식당, 경조사비 등 복지제도 34%

Q.3 IBK기업은행에서 근무하며 얻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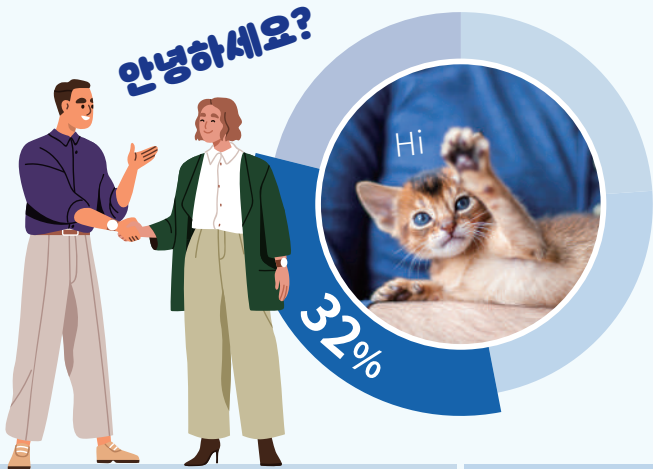
- ① 누구보다 빠르게 접하는 금융권 소식 10%
- ②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 52%
- ③ 고마움을 전하는 따뜻한 고객 15%
- ④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적금 및 예금 24%

Q. 4 동료들에게 가장 고마운 점은?



- | | |
|---------------------------|---------------------------------|
| ① 어려운 일을 함께 처리해줄 때 40% | ②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함께해줄 때 8% |
| ③ 힘든 순간에 따뜻한 위로를 건넬 때 48% | ④ 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한 내게 간식을 나눠줄 때 3% |

Q. 5 일하며 가장 자신감 뽐뽐한 순간은?



- | | |
|----------------------|---------------------------------|
| ① 월급 받을 때 24% | ② 상사에게 기분 좋은 말을 들었을 때 23% |
| ③ 고객이 나를 기억해 줄 때 32% | ④ To-Do 리스트를 업무 시간 안에 끝냈을 때 21% |

Q. 6 IBK기업은행에서 일하며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알려주세요~

충주 연수원 휴양동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 가장 즐거웠습니다.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입행하길 잘했다는 뿌듯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_<!
초읍동지점 김가빈

귀가 어두워 말씀을 못 하시는 고객이 내방한 적 있어요. 그래서 글씨로 소통하며 업무처리를 한 적 있습니다. 업무 후 '감사하다'라는 글씨를 적어주셨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순천향서울병원출장소 이치호

구남친 현남편을 지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지금 생각해도 미소가 지어져요. 남편 사랑해♡
중부지역본부 이윤지

업체 직원분이 "대리님이 있어서 1년 정말 편하게 일했어요"라고 연락하셨을 때! 정말 뿌듯하고 보람찼습니다.
등촌역지점 박소연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맛집 투어하며 업무 스트레스를 날릴 때 행복해요!
일산웨스턴동지점 김순웅

부모님이 자꾸 저를 자랑하고 다니십니다! 그럴 때마다 참 뿌듯하고 행복해요.
양재동지점 김은빈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한 보상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가슴이 짱~해지면서 내 일처럼 기쁘더라고요!!
수지동천역지점 김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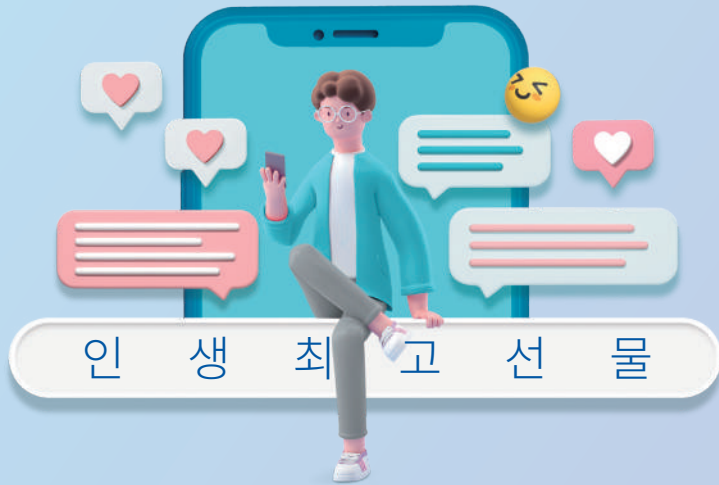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때 책임감 강하고 든든한 팀장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 무척 행복했습니다!
창원상남지점 이정화

63주년 축하해요



IBK기업은행은 나에게

□□□□□□ 다!



IBK기업은행 창립 63주년을 맞아
직원들의 통통 튀는 여섯 글자가 도착했다.
짧은 글자지만 이 여섯 글자엔 IBK기업은행을 향한
직원들의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인생을배운곳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얻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동탄중앙지점 이어진

생애처음직장

20년 동안 다른 직업은 가져본 적이 없어요!
김포하성지점 박남숙

과거현재미래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계획이에요.
신길동지점 김준우

밤에꾸었던꿈

새벽까지 아르바이트하던 제가
꿈꾸던 직장이었거든요.
서전주지점 이정욱

인생의전환점

입행 후, 자아실현을 이뤘어요!
사직동지점 최린

튼튼한버팀목

항상 제가 쓰러지지 않게 잘 지탱해줘요.
아현역지점 김세연

지상낙원행복

늘 기쁨과 행복을 제게 주기 때문입니다.
여신심사부 구영석

자존심자긍심

기업은행에 다닌다고 하면 자존심이 세워져요.
시화지점 유현주

튼튼한영양제

영양제 안 먹으면 아프듯,
없으면 안 되는 IBK기업은행입니다!
워커힐지점 정소영

부활의아이콘

전업주부일뻔한 제가 IBK기업은행 덕분에
어엿한 직장인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김삼나

제1순위원픽

정말 다른 일보다 직장을 우선으로 살고 있어요~
순천향대전안병원출장소 박은희

완성체제작소

저를 더 단단하고 올곧게 만들어 주거든요.
대구여신심사센터 채창균

이뤄진첫사랑

꿈같은 설렘과 낭만이 실현된 곳이에요~
남대문지점 배지호

필요충분조건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한 존재이다!
IT시스템운영부 윤달현

베풀기회를준

업무를 하다보면 자연스레
"고맙다"라는 인사를 많이 듣거든요~
양재동지점 한완수

가족을만든곳

나의 젊은 청춘을 다 보내고
가족까지 만들어 준 고마운 IBK기업은행!
녹산중앙지점 박명선

생애최고선물

IBK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 인생과 함께하는 고마운 사람들이예요.

잠실지점 정영미



아내를만난곳

IBK기업은행 덕분에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고맙습니다^^

IBK고객센터 구자현

행복한피난처

육아를 위해 체력을 보충하는 피난처!!

상무지점 박준

티라미수케익

제가 젤 좋아하는 티라미수처럼 질리지 않거든요~

부산진지점 박은지

새로운수식어

저를 소개할 때 가끔 "IBK기업은행 다녀요"라고 해요.

하남데이터센터이전추진단 김정훈

첫직장막직장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할 직장이니깐요.

일산성석지점 유관현

일터이자사랑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닌
제겐 또다른 사랑거리입니다.

평촌아크로타워지점 김선명

열정의바구니

일하다 보면 늘 열정에
타 죽어보자는 마음이 솟아나거든요.

삼성동지점 김영은

너아니면안돼

IBK기업은행 덕분에 항상 즐겁고 행복합니다!

녹산공단기업금융센터 강동휘

내부캐탄생지

인생의 두 번째 캐릭터를 만들어 준 곳!

구리지점 최진규

내청춘의기록

나이 들어 자서전 내용의 절반을 차지할 곳이기에

선유도역지점 조동신

인사이드아웃

기쁨과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을 만나고 배우는 곳

외환사업부 마사라

골든리트리버

사랑스럽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천사 같은 혜택을 주기에!

광고지점 김성민

행복의전도사

내 집 마련과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도록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줬다.

부산WM센터 조동자

성장의활력소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곳!

인천서구청역지점 김미라

보험과같은것

정년보장! 오래오래 함께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산역지점 우지현

아침형인간짠

부지런하지 못했던 나를 규칙적이게 만들어준 곳!

포항공단지점 양소영

오래머무는곳

가족보다 동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음성지점 유경열

행복의신호등

신호등 색처럼 다양하고 행복한 하루를
선물해주시기 때문이다.

IBK고객센터 최정은

기쁨의키워드

다시 시작하는 나에게 취업이라는
큰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대전오정로지점 최재희

즐거운놀이터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행복해요!

삼성역지점 이수경

또다른내자아

업무를 볼 때 내가 모르던 나의 모습이 나온다!

서귀포지점 박석순

또다른출발지

2024년 4월 저의 또 다른 출발지가 되었거든요.

개인고객부 김건하

재무적동반자

청약통장부터 연금보험까지 기업은행과 함께!

김포지점 국나영



제일친한친구

입행한 지 20년이 넘으니
이보다 더 친한 곳이 없어요.

이태원지점 홍지혜

행운의울타리

선망의 대상인 곳에 입사해
제 인생의 든든한 울타리가 됐습니다.

천안아산역지점 기은혜

전무후무직장

첫 직장이라 젊은 날의 기억이 많거든요!

석촌고분역지점 이나영

세상과의소통

현재 나의 사회생활, 인간관계가 이뤄지는 곳

동수원지점 이소연

두번째내남편

든든하면서도 가끔 머리 아픈 존재 ㅎㅎ

삼성역지점 김유미

워킹맘의실현

워킹맘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서요~

가산테크노지점 최성희

비타민충전소

어려운 업무를 처리할 때 등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줘요!

마포중앙지점 전미선

내차를사준곳

IBK기업은행 덕분에
자동차 할부금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안산중앙지점 이화경

인생의동반자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성장한 나의 동반자♥

포항공단지점 김지현

삶의오아시스

1990년 입행해 일생을 동행했기 때문이다.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안호균

탕탕후루후루

걸은 딱딱해 보이지만 그 안엔 행복감이 담겨있어요!

사회공헌부 이수민

청춘의시작점

19살에 들어와 쭉 함께하고 있다.

서초남지점 임현아

사랑하는애인

애인을 사랑하듯
언제나 IBK기업은행을 사랑할 것입니다.

프로세스혁신부 정윤근

내삶의일부분

가장 많은 시간을
그리고 오랫동안 보내게 될 곳이기도.

경수지역본부 오병석

또다른선생님

어른이 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도당동지점 안소연

인생생존백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큰 힘과 지혜를 준다.

금사공단지점 양은준

사랑의배터리

동료와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정관지점 이진숙

럭키비키자나

언제나 나에게 행복과 행운을 주기 때문이죠~

서전주지점 국예진

내원소나의꿈

IBK기업은행은 내 삶의 원천이고
소중한 꿈을 펼치게 해준 고마운 존재다.

녹산공단지점 강경동

폭신평신평소파

집에서 쉴 편안한 장소이듯,
IBK기업은행은 내게 편안함을 준다.

위례지점 송은경

인생을쓰는펜

인생이라는 원고지에 펜이 되어 주는 곳

IBK고객센터 김주란

내이름수식어

내 이름 앞에 항상 붙어 다니는 수식어!!

대전중앙로지점 박성아

알파와오메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IBK기업은행!

동탄테크노밸리지점 김태환



함께라 즐겁고 행복한
IBK기업은행 창립 63주년
축하 메시지



참! 좋은 은행에는 언제나 참! 좋은 직원들이 가득하죠.
좋은 사람과 함께 만들어 온 IBK기업은행의 63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에는 IBK기업은행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자랑스러운 IBK기업은행
창립 63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중앙동지점 최수정



IBK기업은행과 같은 달에
태어나서 창립기념일이
더욱더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올해 입학
19년 차라 더 설레네요~
스스로 돌아보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저의 작은
발걸음이 IBK의 멋진 앞날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성서지점 이혜진



IBK기업은행의 창립
63주년을 축하합니다.
나의 젊은 날들과 함께한
지난날들처럼
앞으로도 함께 발전하는
미래가 되길 소망합니다.
송현동지점 권정자

63년 동안 단 한 번의
M&A 없이 독자 성장으로
글로벌 TOP100이 된
IBK기업은행의 위상을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100년 이후까지 끊임없이
발전하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서여의도지점 정재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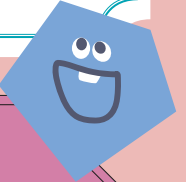
창립 34주년부터 함께 한
청년 IBK기업은행이 어느덧
63년의 중년이 되었네요.
기쁨도 슬픔도 항상
함께한 IBK기업은행의
창립 6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원효로지점 황정현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고객까지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IBK기업은행 최고!!!
63주년 축하하며 더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신정동지점 이은주

63주년을 맞아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걸어온
날들 만큼이나 걸어갈
일들이 많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곳곳이 이겨내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부 하명식

IBK기업은행 63주년
축하합니다.
100주년까지 현장에서
축하해줄 수 있을 것
같아ㅎㅎㅎ 언제나
함께해줘서 감사합니다♡
주안공단지점 박효경





우리 IBK기업은행의 예쁜 생일을 축하합니다!
IT기획부 박수형

IBK기업은행
63주년 축하해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100년까지
쭉~ 가자고요^^
웅상공단지점 장다혜

입행 합격 통지를
확인하던 그 순간처럼
영원히 찬란할
IBK기업은행의 앞으로를
응원합니다!
동수원지점 김은미

평생직장이자 내 삶의
동반자 IBK기업은행
창립 63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개인디지털사업부 임종원



IBK기업은행이 30대일 때
은행 생활을 시작했는데,
벌써 63세가 되었군요.
청춘을 함께한
우리 IBK기업은행,
포에버&포에버~!!!
퇴계로지점 이원근

나의 IBK기업은행,
우리 부부의 IBK기업은행,
우리 가족의 IBK기업은행이
자랑스럽고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100년
은행, 500년 은행, 1,000년
은행으로 더욱 승승장구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IBK의 창립 6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판교테크노밸리지점 권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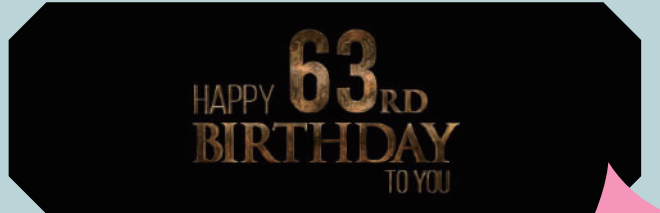
63주년 중에 34년을 함께하고 있네요. IBK기업은행에 몸담고
있음이 언제나 자랑스럽습니다. 저에게도 후배들에게도 앞으로 더
자랑스러운 직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100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도
위상이 드높아질 IBK기업은행 파이팅!!!

테헤란로중앙지점 양민정

63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630년만 더 오래오래
함께합시다!
당산동지점 지기선

IBK기업은행의 63주년을
축하합니다. 고객의 신뢰,
많은 선후배 및 동료들의
땀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변치 않는 고객의 편에서
든든한 친구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IT기획부 이승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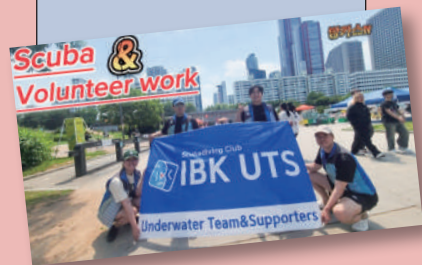
창립 6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3년 동안 IBK기업은행 덕분에 많은 중소기업이 큰 힘이 얻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70년, 80년을 넘어 오래오래 발전해나가는
IBK기업은행 되길 바랍니다!!
용인테크노밸리지점 이바우난



63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은행으로 성장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은인으로서 무척
자랑스럽네요^^♡♡♡
일산마두지점 김은영

IBK기업은행의 역사가
63빌딩 높이만큼이라
생각하니 미래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100년 아니,
롯데월드타워(123층)
이상의 미래를 향해
파이팅!
IBK고객센터 임종문

창립 6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림동지점 운동근



63빌딩은 우리의 기억 속으로
사라지지만, 나의 참 좋은 직장
IBK기업은행은
창립 100주년을 향해,
글로벌 30대 은행을 향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수안역개인스마트지점 이정우



IBK기업은행 6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IBK기업은행이 있어서
든든했고 감사했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프로세스혁신부 안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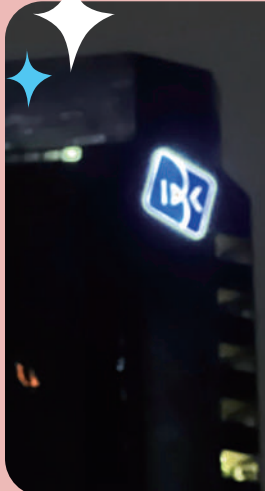
IBK기업은행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모두
축하합니다. 앞으로의
IBK기업은행이 걸어가야
할 길도 축하합니다.
영원히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는 한마음
한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오창지점 이유경

○
○

IBK기업은행 창립 63주년을 축하합니다~~^^

직원분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100주년에는 세계 10대 은행이 되기를~~^^

독산역지점 서구원



IBK기업은행의 창립 6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사행시를 준비했습니다!


기: 기적 같은 63년,
업: 업계의 선두에서 빛나는
은: 은혜로운 시간들 속에서
행: 행복을 함께 나누며 걸어갑니다.

자금세탁방지부 송지은

인생은 육십부터
IBK기업은행은 바로
지금부터 앞으로 더 성장할
IBK기업은행의 63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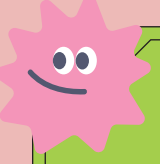
익산지점 박수정

축하합니다!
우와 100주년까지
가보자고!
우리 모두의
피, 땀, 눈물로 일궈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카드마케팅부 이지은

우리 아이들의 첫 거래은행이었던 IBK기업은행. 아이들의 아이들에게도 첫 거래 은행으로 남길 바랍니다. 영원히 성장할 IBK기업은행! 힘내자!

프로세스혁신부 강유영



20살부터 함께한 IBK기업은행 무사무탈하게 앞으로도 더 쭈쭈쭈 잘 나가길 기원합니다.

곤지암지점 김해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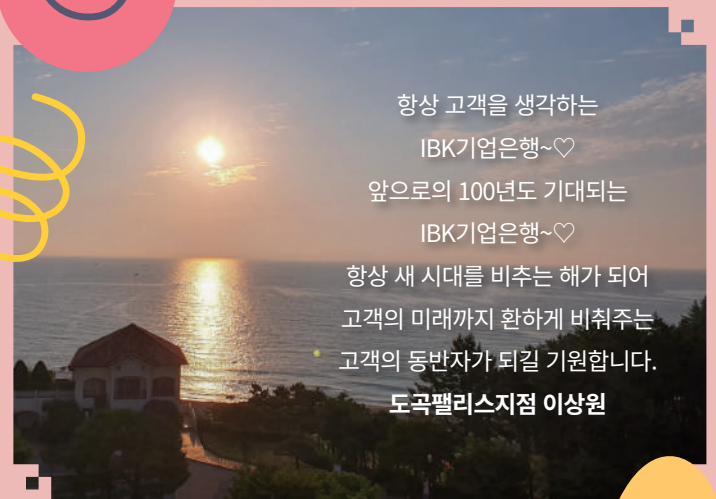
IBK기업은행의 63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IBK기업은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힘내서 파이팅!!

김포지점 이혜민

창립 63주년 축하합니다~♥

IBK기업은행에 다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은행도, 나도 같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IBK기업은행 최고!
동마산지점 이나라**



내생의 반년을 함께 보낸 너~!! 생일 축하한다 ㅎㅎ 우리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자!!

IBK기업은행 생일 축하해!


시화공단WM센터 이은재

벌써 63주년이라뇨! 입행 때가 50주년이었는데... 무색한 세월만큼 같이 나이 들어가고 있다니. 앞으로도 함께 늙어가자~ 약속!

오산지점 홍혜지

IBK기업은행의 63주년을 축하합니다. 언제나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해주세요!!

카드마케팅부 김시은



지금까지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거라 기대해^^

미리미리 예방주사도 잘 맞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일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도 잘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길^^

브랜드전략부 김은주

IBK기업은행 창립 63주년 정말 축하합니다!!!

100주년 200주년 쭈욱~!!! 가보자고!!

지사공단지점 박성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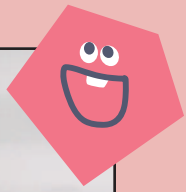
6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IBK기업은행의 새로운 63년, 밝게 떠오를 아침을 기원합니다.

IT운영본부 이권희

IBK기업은행 창립 6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제나 든든하게 우리 곁에 있어 주는
IBK기업은행과 함께 성장하는
일산장항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 63'으로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축 : 축하합니다!
6 : 63번째 IBK기업은행 생일을!
3 : 삼삼오오 모여 축하합시다~~
IBK파이팅!

일산장항지점



함께한 63년. 함께할 63년.
대를 이어 흥하여 계속 반짝반짝 빛나기를♥
평동공단지점



♡♡
기은아~
63번째 생일을
축하해
♡♡
공릉역지점



IBK기업은행의
창립 6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서울대역지점

돌잡이
완주산단지점이
63살 형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IBK형님 사랑합니다!
완주산단지점



63번째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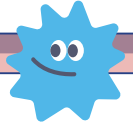
언주로지점 축하 메시지



IBK기업은행 창립 63주년을 맞아 언주로지점 직원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따뜻하게 만든 축하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자!

IBK와 3/63을 함께 했는데, 100주년은 못보고 떠나겠지만 아쉬움은 없습니다. 3/63까지 IBK의 변천 - 수채 노역 화났음나

나성우 지점장



기업은행 63주년을 축하합니다 100주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1등은행이 되길.

이영실 팀장

IBK 기업은행 63번째 생일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고객과 함께 하는 최고의 은행! 파이팅!

신종민 팀장

63년간 지대한 사랑의 변천에 맞게 성장한 IBK기업은행!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사랑받는 1등은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하나 팀장



IBK기업은행 63주년을 축하합니다. 모두에게 힘이되는 1등은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윤인국 차장

기업은행 창립 63주년을 축하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와 함께 행복하길 계속 응원해요!

전태준 차장

IBK기업은행 63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더 성장해나갈 것 같습니다!

장유진 과장

IBK 기업은행 63주년 축하합니다. 늘 고객과 함께하는 최고의 은행이 되길 기원합니다!

신미선 대리

기업은행 63주년, 안으로 063 등 운명이에요. 축하축하합니다~

정혜림 대리



IBK 기업은행의 63주년을 축하합니다. 항상 고객과 직원에게 희망을 주는 기업은행이 되길 기원합니다!

권은주 대리

기업은행 창립 63주년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더 큰 발전과 성취를 기대합니다.

공성민 대리

IBK 기업은행의 6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사랑받는 최고의 은행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이혜림 대리



IBK기업은행의 63주년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0주년, 200주년, ... n주년까지 파이팅! ♡

신승민 대리

기업은행의 63주년! 축하드립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이 시대 최고의 은행! 다음 시대까지 쫓아 ~

김선영 경비원

IBK기업은행

창립 63주년 기념고사

답안지

제1교시

성명 : 기은센

1. IBK기업은행의 창립 기념일은?

- ① 1960년 8월 1일
- ② 1961년 8월 3일
- ③ 1961년 8월 1일
- ④ 1960년 8월 5일

<해설>

IBK기업은행의 창립 기념일은 1961년 8월 1일이다. 1961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한국산업은행에 이어 2번째로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2. IBK기업은행 역대 홍보 모델이 아닌 사람은?

- ① 송해
- ② 차인표
- ③ 이재훈
- ④ 한가인

<해설>

차인표(2002~2009)
한가인(2004~2005)
송해(2012~2017)
2021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모델의 이름은 이재훈이다.

3. IBK기업은행 본점이 위치한 주소로 올바른 것은?

- ①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 ③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 ④ 서울특별시 내마음속 을지로

<해설>

IBK기업은행의 본점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다.

4. IBK가치체계 비전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최고의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_____ 금융그룹

- ① 초인류
- ② 초일류
- ③ 1등급
- ④ 최강

<해설>

IBK기업은행의 비전은 최고의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이다.

5. IBK기업은행 최초의 해외법인은?

- ① 뉴욕지점
- ② 도쿄지점
- ③ 싱가포르지점
- ④ 중국유한공사

<해설>

IBK기업은행 최초의 해외법인은 중국유한공사다. 2009년 6월 설립되어 올해 3월 말 기준 중국 전역에 총 16개의 점포망을 갖추고 있다.

6. IBK기업은행의 대표 캐릭터 이름은?

- ① 기운센
- ② 기은센
- ③ 기운찬
- ④ 기은짱

<해설>

공식 마스코트의 이름은 ‘기은센’이다. 기은센은 우리의 일상에 기운을 주고, 소중한 희망을 함께 이뤄가는 희망로봇으로, 좌우명은 “고객의 희망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이다.

7. 올해로 두 번째로 개최한 페스티벌 이름은?

- ① IBK페스티벌
- ② 입크페스티벌
- ③ 입큰페스티벌
- ④ IBK기업은행페스티벌

<해설>

IBK기업은행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페스티벌의 이름은 입크페스티벌이다. ‘IBK’를 소리 나는 대로 읽은 것으로, 국내 유명 아티스트 공연과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8. IBK기업은행의 애플리케이션 명칭으로 올바른 것은?

- ① i-ONE Bank
- ② one Bank
- ③ I-TWO Bank
- ④ I-YOU Bank

<해설>

i-ONE은 똑똑한(intelligent), 나만의(individual), 인터넷 전문은행(internet bank)을 의미하는 ‘i’와, 고객이 원하는 모든 은행 서비스를 하나(ONE)의 앱으로 제공한다는 ‘ONE뱅크’가 합쳐진 이름이다.

9. IBK기업은행의 지역본부 개수는?

- ① 19개
- ② 20개
- ③ 21개
- ④ 22개

<해설>

IBK지역본부는 총 21개다. 강남, 강동, 강북, 강서·제주, 남부, 남중, 서부, 중부, 인천, 인천동부, 경기남부, 경동·강원, 경서, 경수, 부산, 경남, 부산·울산, 대구·경북동부, 대구·경북서부, 충청, 호남이다.

10. IBK기업은행 63번째 지점은?

- ① 잠실지점
- ② 언주로지점
- ③ 테헤란로지점
- ④ 서여의도지점

<해설>

IBK기업은행 63번째 지점은 언주로지점이다.

11. IBK기업은행 C로 옳은 것은?

- ①  IBK기업은행
- ②  IBK기업은행
- ③  IBK기업은행
- ④  IBK기업은행

<해설>

블루와 스카이블루, 레드를 활용한 C로, 기울어진 사각형에는 정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역동성과 진취성이 담겨있다.

12. 행복하고 보람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IBK기업은행 경영방향으로 옳은 것은?(2가지)

- ① 즐거운 조직
- ② 신뢰와 화합
- ③ 일과 삶의 균형
- ④ 똑똑한 인재

<해설>

IBK기업은행의 경영방향 중 행복하고 보람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 균등한 기회, 역량있는 인재, 일과 삶의 균형, 신뢰와 화합, 활기찬 조직이다.

13. IBK의 약자로 옳은 것은?

- ① Industrial Bank of Korea
- ② Industry Bank of Korea
- ③ Industry Bank Korea
- ④ Industrial Bank Korea

<해설>

IBK기업은행의 약자로 옳은 것은 Industrial Bank of Korea다.

14. IBK매거진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다.

각 이름은?

- ① with IBK - 아름다운 은퇴 - Win Lesson
- ② with IBK - 아름다운 퇴사 - Win Class
- ③ with IBK - 아름다운 퇴임 - Win Class
- ④ with IBK - 아름다운 은퇴 - Win Class

<해설>

IBK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매거진은 총 3개다. <with IBK>에는 트렌디한 소식과 직원들의 일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은퇴>는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 <Win Class>는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을 소개한다.

IBK기업은행
63주년
축하해



15. 마지막으로 IBK기업은행에 하고 싶은 말은?

퀴즈 풀면서 IBK기업은행에 대해 더 자세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나온 63주년 이상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IBK기업은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산지점 김호준 -

IBK기업은행 6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100주년 축하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이니까요~> <행복한 직장이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 반월중앙지점 전유리 -

IBK기업은행이 63년동안 무한한 성장을 해서 기쁩니다! 19세에 입행해 지금 53세가 되었는데, 남은 시간 더 열정적으로 IBK기업은행에서 일하며, IBK기업은행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 신정동지점 강연재 -

63번째 생일을 맞이한 IBK기업은행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앞으로도,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들의 차광막이 되어주는 IBK기업은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IBK.

- 혁신금융부 강정호 -

참 좋은 기업은행에서 참 좋은 사람들과 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IBK기업은행에 오시는 고객분들 그리고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일하는 직원분들 모두에게 만족하고 행복한 은행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 인천항지점 이유미 -

대한민국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인 IBK기업은행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역삼WM센터 임태호 -

IBK기업은행의 70년, 100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63년 동안 선배님들께서 일궈주신 IBK기업은행을 후배로서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화성정남지점 광유희 -

퀴즈를 푸는데 드는 몽클한 기분~ 함께해서 좋은 IBK기업은행의 63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만수무강하소!

- 김해산단지점 배혜주 -

사실 저도, 제 배우자도 IBK기업은행에 몸담고 있어서 IBK기업은행은 단순 직장이 아닌 가족 같은 곳입니다! 63주년 축하하고 더욱더 멋지게 나아가길 IBK기업은행을 기대하겠습니다~


- 마산내서지점 송희선 -

IBK기업은행 63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현장에서 축하해 줄 수 있어 더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업무를 즐기면서 열정적으로 근무하겠습니다^^

- 일산장항지점 정지영 -

IBK기업은행은 제 자랑, 저의 자부심입니다. 13,000여 명 임직원에게 앞으로도 최고의 복지, 일하고 싶은 근무 환경, 더 나은 일터를 위해 힘써주시시오!

- 서산지점 김아영 -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반드시 할 수 있다.”
- 노먼 빈센트 필 -

우리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도모할 수 있는 우주는
나만의 공간을 오롯하게 바라볼 때 탄생합니다.

바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에 몰입한다면
여러분이 꾸리고 싶은 우주는 더욱 선명해질 겁니다.

난 '내'게 반했어!

스스로 꼽아보는 나만의 매력 포인트는?

누구나 맘에 드는 자신만의 매력 포인트 하나쯤은 있는 법이다. 자신의 매력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때 그 매력은 더욱 돋보이는 것! 이것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고, 생각만 해도 뿌듯한 나만의 매력 포인트에 관해 IBK인에게 물었다.



아름다운 마음 32%

나만의 매력 포인트로 자신의 내면, 아름다운 마음씨를 꼽은 IBK인이 많았다. 근면·성실함으로 42년째 은행 생활을 해온 모습부터 “완전 럭키비키잖아~!” 원영적 사고를 뛰어넘는 자신만의 긍정적인 사고까지! 또한 주변을 둘러보며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따스한 마음이 가득한 IBK인도 많았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매력! 최고!

#초긍정_사고 #작은_것에_감사 #열정_가득한_은행_생활



내 특기 어떤데 28%

자신의 특기를 이야기 해준 IBK인도 많았다. 훌륭한 노래 실력, 꾸준한 운동으로 자기관리 하는 모습, 자칭 등산 초고수, 그림 그리기, 꼼꼼한 메모를 통한 정확한 업무처리, IBK 영업왕 등 다양한 모습에서 보이는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뽐내주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다. 앞으로 그 매력을 더욱 발전시키길!

#노래대회_1등 #운동으로_자기관리 #영업왕



사과 같은 내 얼굴 26%

“IBK인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예뻐나?”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분명한 나만의 매력 포인트! 뽀얀 피부, 태평양같이 넓은 어깨, 중저음의 목소리, 보조개와 주근깨, 반달 모양의 눈웃음, 푸바오를 능가하는 귀여운 뺨살 등 내 마음에 쏙! 드는 자신의 매력적인 외모를 말해주는 IBK인도 있었다. IBK인들 모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둥글_보이스 #태평양_어깨 #섬섬옥수 #귀여움



쏘스윗~한 나 14%

사회생활 만렙? NO! 타고난 성격 YES! 태어날 때부터 스윗한 IBK인도 넘쳐나는 자신만의 매력을 말해주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최고의 리스너, “방청객 저리 가라!” 최고의 리액션, 분위기가 꿀꿀하다면 밝게 만드는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 늘 웃는 얼굴로 상대방을 웃게 만드는 미소천사까지!

#다정한_말 #훌륭한_청취력 #밝은_리액션

I Love

Me

다정한 말을 잘해요!

#평촌범계역지점 이승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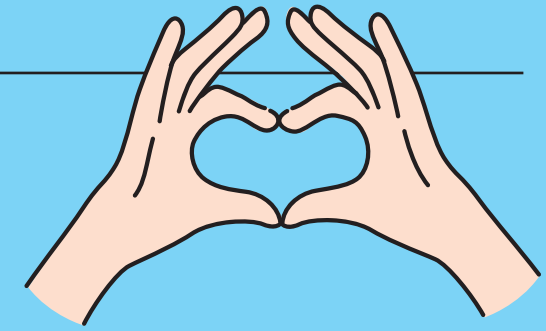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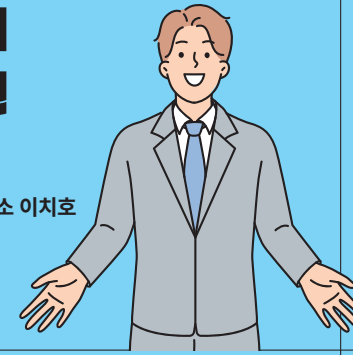


프로창여러! 크루즈
여행 중 노래 장기
자랑에 참여해 1등
했습니다^^ 사랑의
배터리 불렀는데 인기
폭발이었어요>>
#삼성동지점 김영은



중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

#순천향서울병원출장소 이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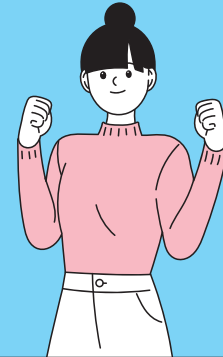


가늘고 길면서 주름 없는 손가락
#일곡지점 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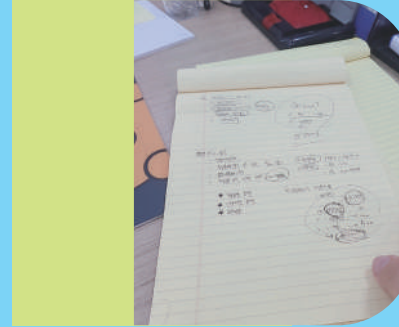


눈웃음^^

#충무부 김덕균



힘들어도
오뎅이처럼
일어나기
#시화공단지점 정윤경



꼼꼼한
메모를 통한
정확한
업무처리
#금사공단지점 김동우

추진력!! 생각하면
바로 실행합니다!

#양재동지점 김은빈



업무에 열정을 다하는
나의 모습!
은행 업무에 진심인
내가 진정한 프로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매력임
#공덕동지점 이미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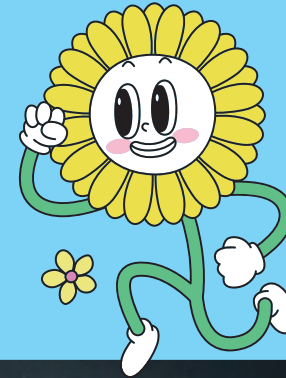


나만의 매력 포인트는
엄마가 물려 주신
점 하나 없는 보안 피부!!!
#염창동지점 조영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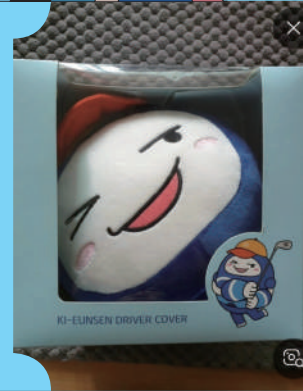
원영적 사고
(초긍정 사고!!)

#부산진지점 박은지



웃으며
인사 나눌 수 있는
직장동료^^

#프로세스혁신부 이혜진



4년 넘게 꾸준히
필라테스한
점이 저의 매력
포인트예요.
#김포지점 이혜민



순발력
짱짱짱

#인천항지점 홍정미

반짝반짝~~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과 행동^^

#잠실지점 정영미



근면·성실

#양재동지점 한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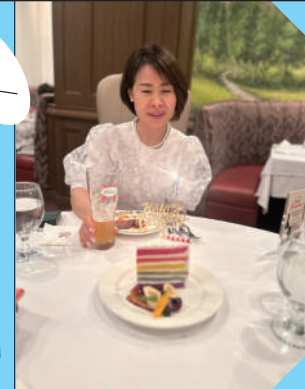


꾸준함과 성실함!! 당장 눈 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노력하는 성실한 모습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지동천역지점 김민정

어떤 직원이 오든 (예: 주재근무직원) 따뜻하게 품어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김포지점 국나영



청취력.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줌
#자금세탁방지부 하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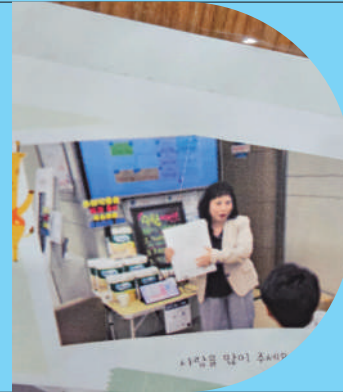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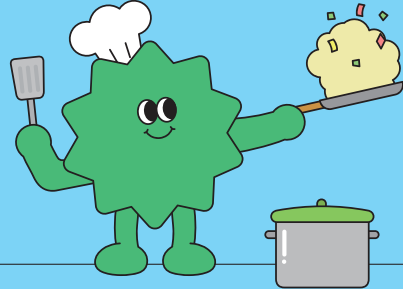


정범합
#동부이촌동WM센터 박정선

육아의 달인! 내 아이뿐 아니라 모든 아이를 진심으로 대해요.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는 편인 것 같아요!
#이천지점 이윤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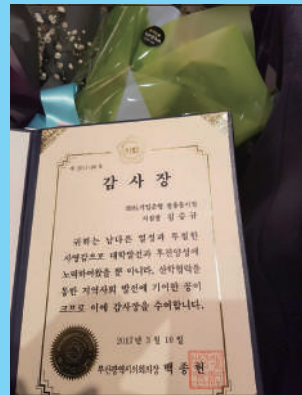


나는야 요리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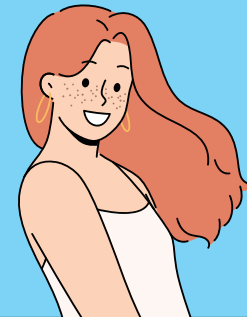
매사에 긍정적이고 툭툭 튀는 열정
#가산디지털지점 이선옥

누가 봐도 랍내는 나의 섬섬옥수
#명동역지점 정한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삶으로 은행 생활 42년을 해온 점
#녹산중앙기업금융지점 김승규

리액션이 좋아요. 대화할 때나 강의를 들을 때 리액션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나만의 특징적인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명학지점 정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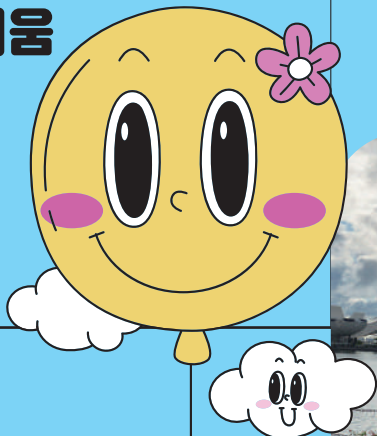
어릴 때는 비비라고 놀림 받았지만, 지금은 매력 포인트가 된 내 주근깨!!

겉겉한 웃음소리와 다이내믹한 표정!
#포항남지점 이선영



톡톡 귀여움

#시화공단지점 윤수미



누구보다 큰 뺨볼, 태평양같이 넓은 어깨 공돌이같이 포근한 얼굴
#수안역개인스마트지점 이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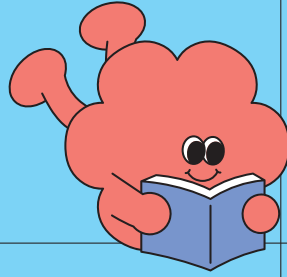


꾸준히 봉사하며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드리고 있어요. 매력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최근에 지인이 저에게 봉사활동 하는 모습이 매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반전 매력이랄까..?



분위기 메이커! 우울한 직원 옆에 가서 웃겨주기^_^♡
#일산장항지점 정지영

주말 아침에
독서하는 나에게
반하다... 커피까지
내려 먹는 나
어른미 뽕뽕!



작은 일에 감사하고
주변인들에게
말로든 작은
선물로든 감사함
표현하기
#춘의테크노지점 정선희



푸바오를
능가하는
귀여운 뱃살
#통영지점 이상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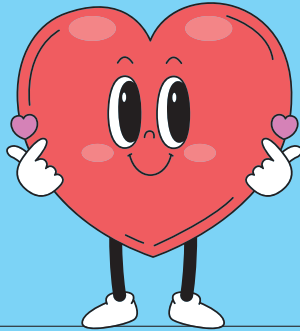
웃을 때 소옥~
들어가는
보조개가
저의 차밍포인트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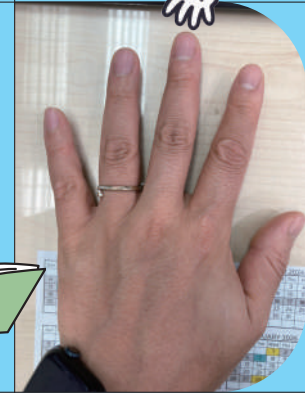
매일 아침
지하철로
출근하는 내 모습~
오늘도 건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산테크노지점 최성희



착한 마음
#대구여신심사센터 박형숙



제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깔끔하고
어른스러운 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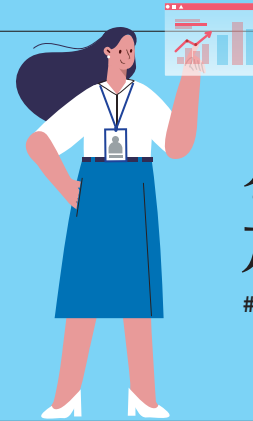
남자치고는
작은 손..?
#하노이지점 안형철

등산 초고수

#안산중앙지점 이화경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조깅하는
제 의지력이
너무 멋있어요!



**성실한
자세!**
#산본역지점 이민영

**천만 불짜리
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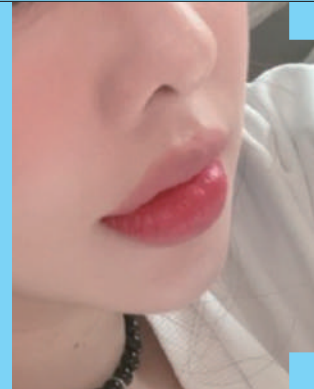
영업왕

#역곡지점 홍종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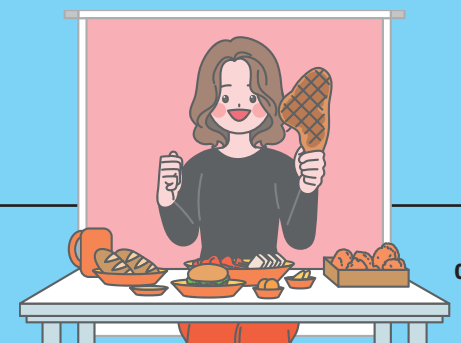
**아이들과
그림 그리기**

#청계8가지점 배재은



명란젓 같은 입술!
밥은 있는데 반찬이 없을 때
입술 뜯어먹어요^^
가성비 명란젓~
#청계7가지점 윤하영

느슨해진 먹방썬에 긴장감을
주는 나의 먹성



오만한 가짜 자부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곧 자부심이다. 하지만 잘못된 자부심이 자리 잡으면 사랑보단 채찍이 내 주위를 맴돌게 된다.

자부심과 자존심은 달라요

심리적으로 자부심이란 본인이 성취한 일을 통해 자기 가치를 확인할 때 느끼는 감정을 뜻한다. 자부심은 대표적인 자기초점 감정의 하나로, 타인초점 감정인 공감 등과는 구분된다. 즉, 자부심이란 오롯이 자신을 향한, 자신만을 위한, 긍정적인 감정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주의 성향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자부심을 나타내는 세부 감정들, 이를테면 ‘보람차다’, ‘성취감을 느끼다’, ‘뿌듯하다’, ‘ 긍지를 느끼다’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실제로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집단주의 성향, 즉 타인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길 좋아할수록 자부심보다는 타인에 대한 연민, 공감, 연대감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난 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살면서 딱히 이룬 게 없어서, 자존감이 낮아요” 등 종종 사람들은 자부심과 자존감을 착각하곤 한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자부심과 자존감은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 우선 자부심이란 자신의 ‘능력’과 밀접히 연관된 감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무언가 이뤄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곧 자부심이다. 반면 자존감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무언가 이뤄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곧 자부심이다. 반면 자존감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이 깊다.

긍정적 태도와 관련이 깊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든, 모자라든, 뭔가를 이뤘든, 이루지 않았든 그것이 곧 ‘나’를 부정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좀 못해도 어때”,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나도 뭔가 잘하는 게 하나는 있겠지” 하면서 비록 자부심을 경험하진 못해도 자존감은 높게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자부심과 자존감이 아예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다. 자부심은 높은 자존감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수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높은 자존감을 가졌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자존감에 이르는 길이 비단 자부심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뒀야 한다. 일상에서 긍정적인 기분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부모나 친구, 동료 등 다양한 주변 사람들로 부터 지지와 사랑을 얼마만큼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자신만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있으며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지 등 능력적인 부분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높은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니 말이다.

Self Este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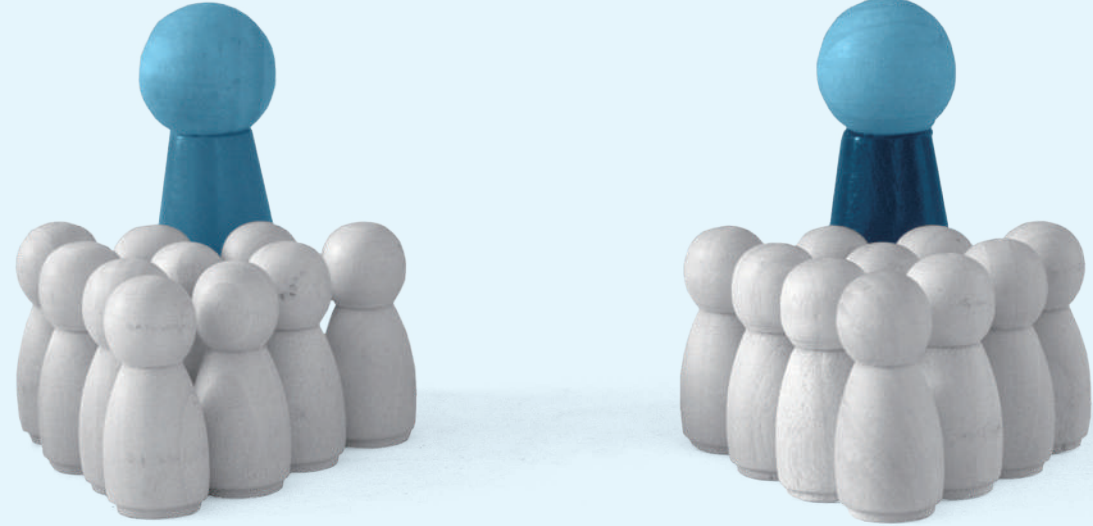


‘라떼는~’ 해야 하는 이유

나는 일기를 쓰는 등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가 그동안 이뤄놓은 자랑스러운 결과물들을 반추하면서 나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곤 한다.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나의 이런 버릇에 아주 잘 들어맞는 심리학 이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기가치 확인 이론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자 스틸은 해당 이론을 통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 업적 등을 곱씹으며 자부심을 얻는다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심리학자 홀과 동료들은 이와 관련된 재밌는 심리학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들은 노숙자들을 두 부류로 나눠 각각 인터뷰를 실시했다. 먼저 자기가치 확인 조건의 노숙자들에게는 “지금껏 살면서 본인이 제일 잘나갔던 순간에 대해 들려달라”고 했고, 통제 조건의 노숙자들에게는 “최근 먹었던 식단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노숙자들이 귀가하는 길에 택자를 가져다 두었는데, 그 위에는 노숙자 재활 프로그램 안내 전단이 비치되어 있었다. 연구자들은 노숙자들이 전단을 가져가는지 여부에 주목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다. 자기가치 확인 조건의 노숙자들이 통제 조건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택자 앞에 멈춰서며, 실제로 전단을 가지고 간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잘 나갔던 ‘왕년’을 떠올린 노숙자들은 잊고 있던 자부심을 떠올렸으리라. “그래, 내가 알고 보면 참 능력 있고 이룬 것도 많은 사람이었지. 이참에 재기해보자. 난 할 수 있어!”라고 말이다.

Self Worth



자부심 넘치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성취를 찾아다닌다.



자발적인 동기에서 피어나는 자부심

이처럼 자부심에는 묘한 힘이 있다.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고, 자기를 긍정하게 하는 힘이 있다. 더 나아가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한 가지 더 소개하자면 심리학에는 자기 결정성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간단히 말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열심히 노력하며 재미를 느끼는 ‘자발적인 동기’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다룬다. 자발적인 동기를 위해서는 유능감, 관계성, 자율성,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각각 ‘내가 충분히 유능하다는 느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이뤄간다는 느낌’, ‘스스로 과업의 목적과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느낌’을 말한다. 그리고 자부심이란, 이 중 유능감 및 자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보유한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리고 더 나은 성취를 위해 스스로, 자신만의 목표를 설계하고 나아가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발적인 동기’에 누구보다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부심 넘치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성취를 찾아다닌다.



여러분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은 프리랜서지만 한동안 직장인으로 살았다. 심리학 전공을 살려 HR 분야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나를 일하면서 연구 성과도 쌓고, 매출에도 기여하고, 연봉협상에서도 대개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이 자부심으로 남았는가, 하면 솔직히 애매하다. 일부 직무, 업종을 제외하면 대체로 관료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직장인들은 자부심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기 쉽지 않다. 대부분의 과업이나 프로젝트들이 모두 분업화되어 있기에 나는 그 업무의 일부만을 담당할 뿐, 나의 노고가 가시적으로 어떻게 성과에 기여하였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일선에서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며 매출을 체크하는 세일즈 직무라면 모를까, 개발자나 기획자, 디자이너, 경영지원 등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매출 어디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핵심성과지표(KPI), 다면평가, 고과점수/등급, 연봉협상 결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 나의 노력이 결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심리학자 트레이시와 로빈스는 자부심의 함정을 경고했다. 이들에 따르면 자부심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본인의 노력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은 성취감인 진짜 자부심, 다른 하나는 명확한 성취 없이 단지 자기애에 기반을 둔, 오만한 자부심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과업을 포장한다. 남들보다 더 바쁜 척, 남들보다 더 힘든 척 연기하며 자신이 왜 이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를 그저 '말'로서 열심히 어필하고 다닌다. 그러나 성취에 기반하지 않은 오만한 자부심은 진짜 자부심에 비해 위태롭기 그지없다. 내가 이런 성취는 흔적을 남기지만, 이를 위장하고 포장하려는 말들은 쉽게 흩어지기 마련이다.



돈은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지, 노력 그 자체의 산물은 아니기에 때로는 연봉보다 이케아에서 사다 직접 조립한 가구가 더 자부심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자부심 = 연봉인가?

현대 사회가 점차 복잡해질수록,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들이 점차 세분화될수록 자부심을 느끼기란 어려운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늘어가는) 월급과 연봉이 곧 직장인의 자부심이라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저 돈 많이 준다고 사람들이 다 만족하는 건 아니다.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들어갔어도 이직과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돈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그것이 오롯이 자부심으로 연결되었다면 그 자리에 눌러앉았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은 돈과 같은 물질적인 것 이외에 다른 종류의 자부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돈은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지, 노력 그 자체의 산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연봉보다 이케아에서 사다 직접 조립한 가구가 더 자부심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설사 물질적 대가가 적더라도 내가 직접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만든 무언가라든지,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유능함이라든지, 혹은 여가와 삶의 질 측면에서 겪게 되는 삶의 보람이라든지, 지키고자 하는 고귀한 신념을 따를 때의 긍지라든지, 이런 비물질적인 종류의 자부심이야말로 건강한 자존감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글. 허용희 작가

사이콜로피아 대표. 심리학 전문 작가이자 강연자. 심리검사를 개발하고 코칭하는 일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당신은 심리학에 속았다>, <게으른 사람들의 심리학>, <자존감 높여라 행복해지는 법을 잊은 당신에게> 등이 있다.

나를 인지하고 직시할 때 생기는 용기

방송인 오상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단어의 모양새는 다르나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동일하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하는 힘은 자부심에서 출발한다. 자부심에서 비롯된 힘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더 남김없이 사용하게 만든다.

Q. 안녕하세요! 먼저 오상진 님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오상진입니다. 방송 활동을 한 지 올해로 벌써 19년이 됐네요. 8년 정도는 MBC 아나운서로 근무했고, 이후에는 프리랜서로 전향해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몇 년 전 책방을 오픈해 서점 ‘책발전소’ 대표로도 지내고 있습니다.

Q. 8월호 주제는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은 자신을 오롯이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상진 님이 생각하는 자부심이란 무엇인가요?

‘자부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와 힘 때문인지 ‘자부심’을 쉽게 정의하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웃음). 음, 방금 그 질문을 듣고 ‘나는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저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라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버티게 만들고, 나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잖아요. 하지만 “나는 몇 점짜리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너무 높은 점수를 말하면 오만이 될 수 있고, 또 너무 과소평가하면 스스로를 깎아 먹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저는 저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직도 낯설고 어려워요. 이런 행동을 요즘 용어로 정의하면 ‘메타인지’인데,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것을 얼마나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지가 자부심의 핵심인 것 같아요.



Q. 사람마다 자부심의 원천이 다르듯, 자부심을 키우는 방법도 각양각색일 것 같아요. 자부심을 키우기 위한 오상진 님만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작은 일도 대단한 일처럼 부풀려 말하는 사람과 그 반대로 실제 지닌 능력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저는 후자에 속하는데, 제 능력을 수치화했을 때 50점이 아니면 50점이라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요. 프로그램 등 업무와 관련된 공부를 한다든가, 최신 트렌드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학습하는 등 공부를 통해 자부심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Q. 자부심은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볼 때 더욱 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진 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을까요?

상처받고, 치유되지 않은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다 보면 생채기가 계속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속 성장할 수 없다고 봐요.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아침에 딸과 노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시름도 있지만 그냥 아이랑 같이 있으면 잡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고 있으면 ‘아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족과 함께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마음도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Q. 그렇다면, 가장 최근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선택을 받는 직업이다 보니, 하려던 일이 어그러지거나, 성사가 안 났을 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속상하고 걱정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얼마 전, 10년 넘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수상했습니다. 이런 외적인 평가가 내려졌을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때 자부심의 크기가 더욱 커지는 것 같아요.

Q. 자부심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어 책을 읽는 분들도 계시죠. 오상진 님은 서점 ‘책발전소’도 운영 중이신데요. 책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책은 정말 오래된 미디어 중 하나잖아요. 지금은 TV, 유튜브, SNS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매우 다양하지만, 예전에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구술 아닌 활자뿐이었어요. 저도 어쭙잡게 책을 써본 경험이 있는데 책이란, 개인의 생각과 지식을 최선을 다해 담아내는 미디어거든요. 때문에 책은 한 사람의 삶이 녹아있는 지식과 경험을 저렴한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Q.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6년 전, <당신과 함께라면 말이야>를 출간하셨죠. 일기, 지금도 잘 쓰고 계시나요?

매일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진 않지만, 틈틈이 휴대전화 메모장에 기억할 만한 날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점점 잊어가는 게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일상을 기록하고 생각을 적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최근 아이와 함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봤는데 코어 메모리가 쌓이고 쌓여 그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고 잔잔한 기억들이 쌓여 그 사람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록을 통해 저의 밀도와 저의 정체성을 조금 더 공고히 다져 나가려 노력해요.



잔잔한 기억들이 쌓여 그 사람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록을 통해 저의 밀도와 저의 정체성을 조금 더 공고히 다져 나가려 노력해요.



방송인 오상진
대한민국 방송인이다. 2005년 MBC 24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 2013년 프리랜서를 선언했다. 이후 드라마와 영화, 라디오, 예능프로그램을 중횡무진하며 다양한 활약을 펼치는 중이다. 저서로는 <당신과 함께라면 말이야>가 있으며, 아내 김소영과 함께 서점 ‘책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Q.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와 말투를 갖고 계십니다. 오상진 님도 MC로서, 배우로서 타인 앞에서 서는 경우가 많으시죠. 직장인들도 회의할 때,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등 타인 앞에서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스피치는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필요한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호흡, 발음, 제스처 등 비언어적인 것에서도 신뢰감이 쌓이거든요. 예를 들어 꾸벅꾸벅한다거나 발음이 안 좋으면 신뢰도와 집중도가 떨어져요. 하지만 말하면 이러한 부분은 전문 프리젠테이션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업무에서 필요한 PT 능력의 기본은 '이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 발표할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본인이 이해하고 발표하느냐는 거죠.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브리핑하다 보면 설명이 중구난방이 되고,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발표는 설득을 위해 하는 것이니만큼 완벽한 숙지를 기반으로 PT에 임하신다면 자신감은 물론, 청취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방송인 오상진이 <with IBK>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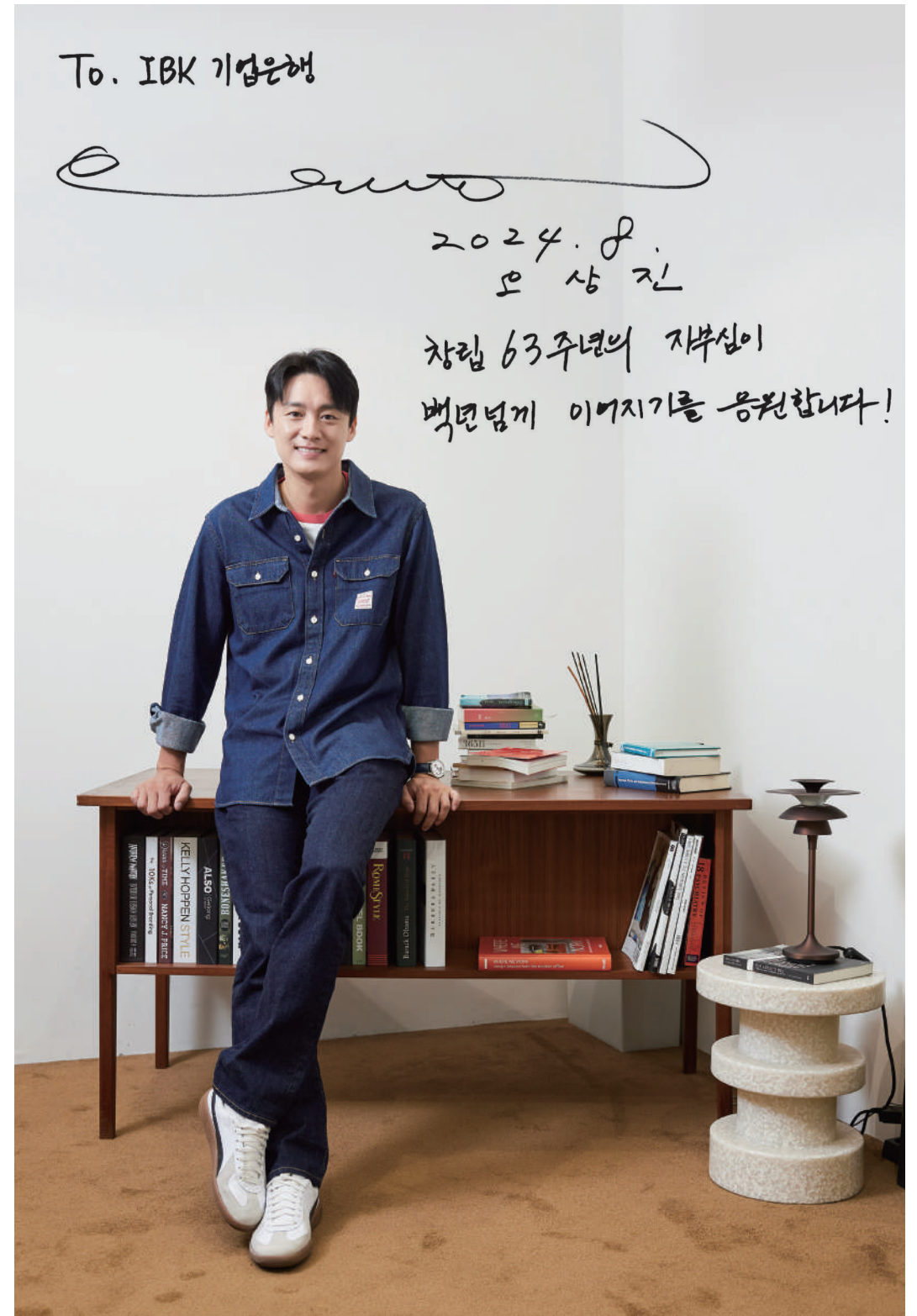
저는 IBK기업은행과의 인연이 꽤 깊어요. 대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지금 IBK기업은행에 다니고 있고, MBC에 근무할 때 주거래 은행이 IBK기업은행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무척 친근한 은행입니다. 항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만큼 직원들도 본인의 마음을 잘 챙겨 지금보다 더 단단하고 더 큰 은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Q. 오상진 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요즘 미디어 비즈니스, 비즈니스 쇼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말처럼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감이 잘 안 잡혀요'라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고 AI 시장도 계속 다변화를 겪고 있으니깐요. 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많아지고 계속 발전하다 보니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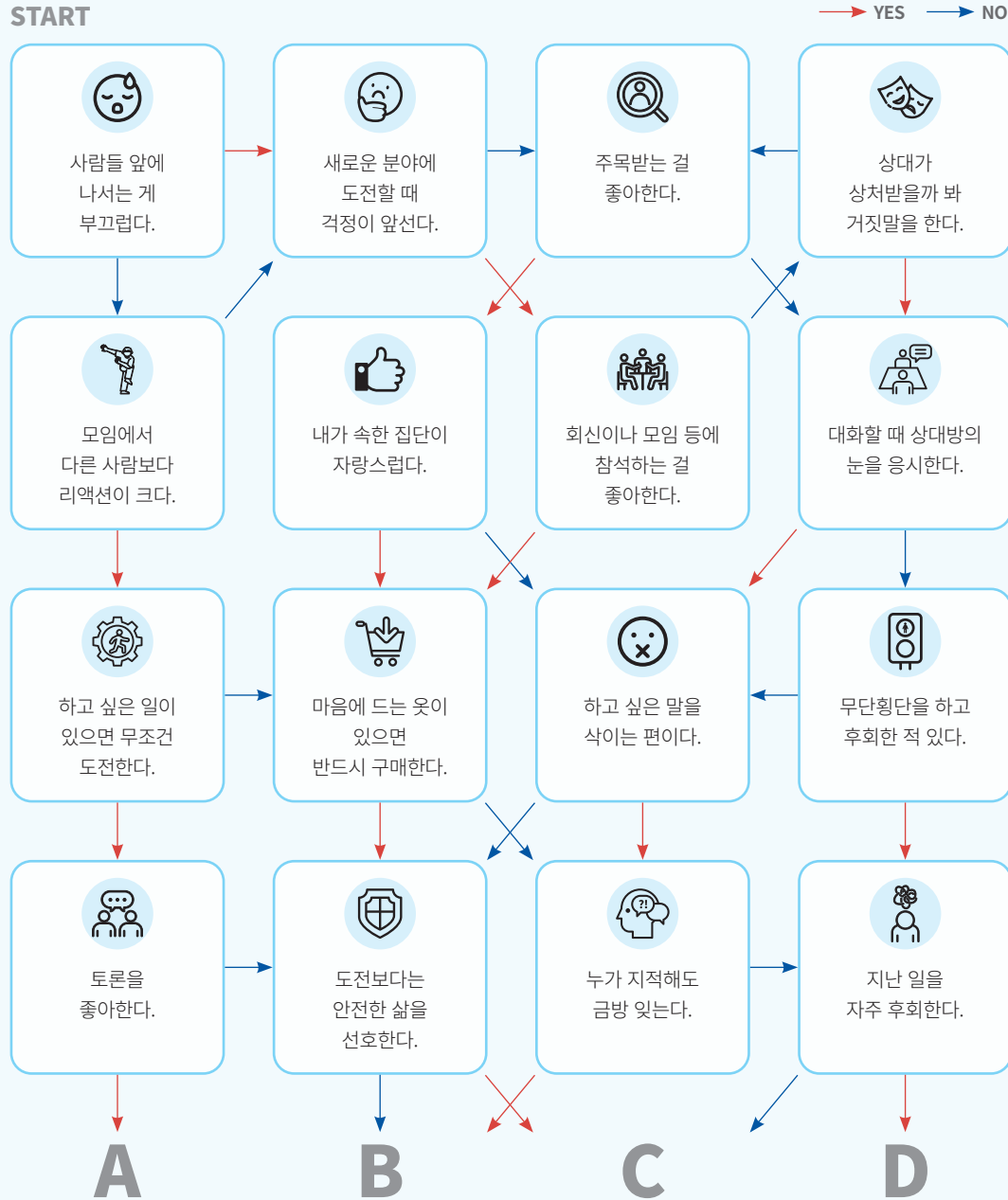
Q. 끝으로 IBK기업은행이 올해로 창립 63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IBK기업은행의 창립 63주년을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기념비적인 창립 기념호에 제가 인터뷰할 수 있어 무척 영광입니다. 63년 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나를 제일 사랑하고 싶다면 자부심 테스트

START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건 누가 뭐래도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나를 얼마만큼
아끼고 사랑하고 있을까?



자부심 100%, 부심쟁이

언제 어디서든 자부심 넘치는 당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맡은 일은 완벽하게 처리한다. 매사 똑 부러지는 일 처리로 주변에서 능력자라 칭찬받는다. 본인 역시 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어 항상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자부심이 지나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조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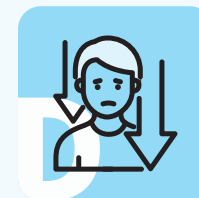
자부심 70%, 근자감쟁이

본인의 능력치와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 당신은 눈치가 빠른 만큼 자부심도 높다.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주변 분위기도 잘 파악한다. 하지만 가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불쑥 튀어나온다. 이유 없는 자신감이 업무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지금보다 완벽한 자부심을 위해서는 자기 계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자부심 50%, 어중간쟁이

자신이 가진 능력에 비해 자신감이 부족한 당신!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진 않은가?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지만, 자신을 낮춰 평가하니 자기애는 물론, 자부심도 낮아지고 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높은 스펙이 아닌 스스로를 사랑하는 시간이다. 이제는 자부심을 가져보자.



자부심 30%, 소심쟁이

가혹할 정도로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없어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무시하곤 한다. 또 매사 소심한 행동으로 업무에 임하다 보니 업무를 할 때도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스스로를 불신하니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를 외쳐보자.



국물이 끝~내줘요!

강원도
황태의 맛!

⑧ 강원도 편_산촌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더위로 짹짹한 8월,
여름휴가 떠나기 좋은 달이다.
IBK트끼도 휴가 떠나기 좋은 곳으로
맛있는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에서
만난 황태요리는 국물이 끝내줬고,
강릉지점 IBK인들은 단골이 되었다.

It's Delicious



맛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8월에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입추(立秋)라는 절기가 있다. 하지만 요즘 8월은 7월의 더위를 품고 더 큰 더위가 마지막으로 기승을 부리는 시기인 것 같다. 덕분에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여름휴가를 떠나 맛있는 음식을 즐기려는 시기이기도 하다. 다시 돌아온 8번째 IBK뜨끼도 여름휴가 떠나기 좋은 강원도 강릉으로 향했다. 비가 올까 노심초사했던 마음을 위로하듯 화창한 날씨는 맛있는 여행을 더욱 설레게 했다. 강릉역을 지나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있는 오늘의 맛집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맛있는 여행에 함께 할 강릉지점 김일호 팀장, 오윤서 차장, 김주희 대리, 이강빈 대리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입행 1년 차, 이강빈 대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4명은 모두 타지에서 온 직원들인데요. 함께 강릉 맛집을 가보고 싶은 마음에 IBK뜨끼를 신청하게 됐어요.”



조금은 긴장한 듯이 보이는 강릉지점 막내 이강빈 대리가 신청 계기를 말해줬다. 막내의 신청으로 함께 모이게 된 네 사람. 오늘 모인 IBK인은 모두 합숙소에 살고 있다고 한다. 합숙소에서 지내는 직원들끼리 함께 밥 먹자는 이야기는 자주 나왔지만,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 회식 말고는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먹지 못했다며, 이번 IBK뜨끼를 통해 그 약속을 지키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말하는 오윤서 차장.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다 보니 집밥이 참 그리거든요. 함께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충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IBK인들의 마음과 통한 듯이 IBK뜨끼 오늘의 맛집은 외관부터 맛까지 집밥 스타일의 찐~현지인 맛집, 식당 ‘산촌’이다.



여름 더위? 넘어갈게요~ 황태 왔거든요

Since 1997, 산촌이 산촌했다!

강원도 강릉시 성산에 위치한 식당 ‘산촌’은 여행객들보다 현지인들에게 더 유명한 황태요리전문점이다. 평소 즐겨 먹지 않는 황태요리에 다들 반신반의하고 있을 무렵, 황태와 홍합으로 우려내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황태뚝배기와 입맛을 돋우는 황태찜, 쫄면한 황태구이 한 상이 차려졌다. 팔팔 끓는 황태뚝배기와 새빨~간 황태찜과 황태구이의 비주얼을 보니 군침이 절로 돌았다.

“맛있겠다~~!”

김주희 대리도 모르게 튀어나온 속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과 동일했다. 다 같이 IBK뜨끼의 시그니처 구호를 외치며, 맛있게 먹을 준비를 마쳤다.

“산촌~ 기여보넝! 맛있게~ 먹겠넝! 잘 먹겠습니다!” 황태뚝배기의 국물을 한 입 뜯 김일호 팀장. 숨길 수 없는 찐 리액션이 터져 나왔다.

“국물이 끝~~내줘요!”

강릉지점 안에서도 아재 개그를 자주 선보인다는 김일호 팀장이 추억의 멘트로 산촌의 맛을 제대로 표현해 준 덕분에 먹는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황태뚝배기의 진한 국물을 잇을 수가 없네요. 이것 만큼 확실한 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태구이 식감이 너무 좋네요. 매콤하면서도 쫄득하게 씹히는 황태구이 최고입니다.”

더위는 더위로 다스리는 법! 오늘 제대로 이열치열을 즐긴 IBK인들 모두 강릉 황태의 맛에 푹 빠져버렸다.

황태도, IBK인도 모두 매력 있어~

IBK인들에게 스스로 꼽아보는 나만의 매력포인트가 무엇인지 물었다. 잘 먹고, (음식을)잘 만든다는 김일호 팀장, 밥 잘 사주는 귀여운 누나(?)라는 오윤서 차장, 잘 웃고, 역시 잘 먹는다는 김주희 대리, 낙타 저리 가라~ 싶은 속눈썹을 가진 이강빈 대리. 모두 자신의 매력을 잘 알고 있는 매력 만점 IBK인들이었다.

이어서 진행된 IBK트끼 미니게임! 평소 자주 사용하지만 이름을 물어보면 “뭐지..?” 싶은 물건의 이름을 맞춰보는 게임을 준비했다. 굴에 붙어있는 하얀 섬유질 굴락, 피자에 늘 꽂혀있는 하얀 삼각대 피자세이버, 제사상에 올라가는 옥춘당 등 난이도 있는 문제에 당황했지만, 이곳에서 김일호 팀장의 아재 개그는

홍련이었다. 그래도 승자는 김주희 대리! 덕분에 디저트로 안성맞춤인 고소한 초당두부까지 맛볼 수 있었다.

“김일호 팀장님이 게임할 때 스케치북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모습이 너무 웃겼어요! 너무나도 맛있고 즐거웠던 IBK트끼였습니다!”

비록 합숙소 생활이 힘들 때도 있지만, 가족 같은 서로가 있기에 오늘처럼 웃으며, 재밌게 일한다는 IBK인들. 맛있게 먹은 황태, 시원한 재미를 준 IBK인, 맛있는 여행만 소개하는 IBK트끼, 모두 매력 만점~!



‘IBK트끼’에 함께한 소감 한마디!

**강릉지점
오윤서 차장**

콩나물과 황태가 매콤한 양념과 잘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었어요^^!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울컥할 정도로 재밌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강릉지점
김주희 대리**

마지막에 먹은 초당두부가 너무 담백하고 고소해서 반해버렸어요! 산과 바다가 있고, 맛있는 커피, 음식이 넘쳐나는 강릉으로 모두 놀러 오세요~!

**강릉지점
김일호 팀장**

오 차장의 필라테스 댄스가 기억에 남네요ㅋㅋㅋ 활영 내내 즐겁게 웃었습니다. 정말 맛있고, 재밌었습니다!

**강릉지점
이강빈 대리**

IBK트끼 신청하길 정말 잘했네요! 제대로 된 강릉 맛집을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다들 강릉 놀러 오시면 산촌 꼭 방문하셔서 황태 드셔보세요~!



산촌

황태뚝배기, 황태찜, 황태구이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길 83

☎ 033-641-9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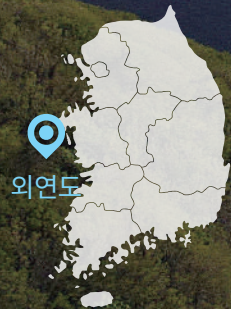
사진 왼쪽부터 오윤서 차장, 김주희 대리, 김일호 팀장, 이강빈 대리

천연기념물 당산 숲과 낙조가 아름다운 섬

충남 외연도

무인도가 많은 충청남도에서 내세울 만한 섬은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하지만 외연도는 섬 천국인
신안군이나 진도군에 내놓아도 이쁨받을 만한 섬이다.
연기에 가린 듯 까마득하게 보인다고 해서 얻은
이름 외연도. 알음알음 캠핑 명소로 알려진 외연도로
떠나보자.

外 煙 島





01

외연도, 충남 섬의 자존심

대전항을 떠난 여객선은 호도와 녹도를 들러, 외연도에 닿았다. 큰 배낭을 멘 사람들과 선착장에 내렸다. 외연도가 좋은 건, 해안 곳곳의 전망 데크에 텐트를 치면 그곳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젓한 캠핑사이트로 바뀐다는 점이다.

외연도 면적은 2.18km²로 여의도(2.9km²)보다 조금 작은 섬이다. 해안선 길이는 8.7km에 불과하다. 외연도 항구는 망재봉(171m)과 봉화산(273m) 사이에 자리하고, 항구 중심에만 집들이 웅기증기 모여 있다. 예전에 항구는 예쁜 백사장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접안 시설을 만들면서 대부분 파괴되었다니, 아쉬운 마음이다.

섬에 하나뿐인 평화슈퍼에서 물과 라면을 사고, 식당에서 싱싱한 우럭회를 떴다. 그렇게 저녁 메뉴가 결정됐다. 우선 텐트를 치기 위해 섬 동북쪽의 노랑배로 향한다. 마을로 들어서자 새를 관찰하는 탐조 동호회원들이 보인다. 외연도는 봄가를 통과철새가 지나는 섬으로 탐조의 성지로 불린다. 봄에만 있을 줄 알았던 탐조 동호회원들이 여름철에도 있었다.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니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이 여름에도 새가 많다고 귀땀해 준다.

자리를 옮겨 외연도 일몰 명소인 노랑배 근처에 텐트를 쳤다. 외연도 구경은 해안을 따라 한 바퀴 돌면서 구석구석 절경을 감상하면 된다. 특히 봉화산과 망재산 아래 자리한 고래조지는 외연도의 숨은 비경이다. 노랑배에서 산길을 30분쯤 올라 봉화산 정상에 닿았다. 정상에는 봉화대 터가 남아 있다. 과거, 봉화는 어청도에서 시작해 외연도, 녹도, 원산도를 거쳐 육지의 충청수영으로 전달됐다.



02

봉화산에서 감상하는 몽환적 노을

봉화대 터 앞에서 서쪽 조망이 시원하게 열린다. ‘소청도’란 이름의 작은 섬이 마치 헤엄치는 고래처럼 보인다. 먼바다는 해무가 살짝 껴 오묘하게 빛난다. 스멀스멀 해무가 순식간에 몰려와 소청도 일대를 뒤덮었다. 외연도란 이름은 이런 해무에서 나왔다. 연기에 가린 듯 까마득하게 보인다고 해서 외연도란 이름이 붙었다. 해무 속에서 시나브로 노을이 지니 몽환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외연도의 노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노을을 낫 놓고 보다가 주변이 어둑어둑해져 텐트로 돌아왔다. 서둘러 저녁상을 차린다. 저물었는데도 빛나는 바다를 보면서 희 한 점, 어둠이 빛을 집어삼키는 걸 보면서 또 한 점, 하늘에서 하나둘 별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만찬을 즐겼다.

부스럭부스럭 텐트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깜박 잠이 들었나 보다. 누가 찾아올 리 없지만, 무언가 찾아왔나 싶어 밖으로 나가본다. 달빛이 바다에 부서지는 소리였을까? 하늘에 휘영청 달이 떠올라 은빛 가루를 뿌려대고 있었다.

달이 떨어지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즈음, 우렁찬 새소리에 저절로 잠에서 깬다. 간단하게 아침 요기를 하고, 텐트를 그대로 두고 가볍게 짐을 꾸려 트레킹에 나선다. 약수터에서 조금 내려가면 만나는 작은명금은 몽돌 해안이다. 크고 작은 돌들이 깔렸다. 외연도에서 유일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작은명금 옆의 돌삭금에는 커다랗고 거친 돌이 흩어져있다. 이곳은 주민들의 양식장으로, 때가 되면 마을에서 흥합과 전복 등을 채취하는데 품질이 최상급이라고 한다.

01 2시간쯤 배를 타면 주변 풍경이 수려한 외연도에 닿을 수 있다.

02 작은명금 해변에는 크고 작은 몽돌이 깔려 있다.

03 외연도 중앙에 자리한 당산. 울창한 숲속에는 전횡장군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03

돌삭금에서 시작되는 길은 마을을 거쳐 망재산 입구에 닿는다. 그윽한 대숲과 울창한 숲길을 통과하면 정상에 닿는다. 예전에는 마을이 잘 보였는데, 관목이 들어차 시야를 가린다. 정상에서 슬슬 내려오면 울창한 소사나무 숲을 통과한다. 구불구불 길 이어서다가 갑자기 시야가 넓게 열리면서 드넓은 초지가 펼쳐진다. 여기가 고래조지다.

외연도 최고 절경, 고래조지

고래조지란 생소한 이름은 초지 아래 해변 바위가 고래의 생식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앞쪽으로 무인도인 횡견도, 대청도, 중청도가 차례로 펼쳐지고, 그 앞을 어선이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풍경이 한없이 평화롭다. 초원에 털썩 주저앉아 바다 멍을 즐긴다.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 둘레길을 따른다. 고래조지에서 고라금으로 이어진 부드러운 오솔길은 바다를

품고 있다. 식생이 좋고 부드럽게 굴곡져 길을 걷는 맛이 일품이다. 이 길을 뚝 잘라다가 나의 '길 노트'에 책갈피처럼 꺼 넣고 싶다.

고라금에서 시작된 길은 당산으로 이어진다. 당산은 주민들이 제를 지내는 신성한 공간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당산 숲에는 고로쇠나무, 푸조나무, 자귀나무, 팽나무 등의 활엽수와 후박나무, 동백나무, 식나무, 붉은가시나무 등의 상록수들이 어우러진다. 나무마다 내뿜는 각양각색의 신록의 물결에 정신이 어질어질하다.

당산에는 전횡장군을 모시는 사당이 있다. 중국 제나라 왕의 동생인 전횡장군은 나라가 망하자 군사 500여 명과 함께 쫓기다가 외연도에 닿았다고 한다. 이후 한 고조가 그를 부르자 한나라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결하니, 그의 부하 500명도 함께 순절했다. 주민들은 이를 안쓰럽게 여겨 사당을 세우고 제를 지냈다.



당산에서 노랑배 텐트로 돌아와 트레킹을 마쳤다. 이제 텐트를 접을 때다. 외연도는 철새들에게도, 심이 필요한 캠핑족도 야박하지 않다. 자신의 품에서 쉬게 하고, 어깨를 토닥토닥 다독여 먼 길을 떠나게 한다.



Tip 외연도 가이드

외연도는 캠핑과 트레킹에 특화된 섬이다. 당일로 섬을 즐기는 것보다, 텐트를 가져가 1박 이상 머무르는 것을 추천한다. 캠핑사이트로는 돌삭금, 노랑배, 약수터 등이 좋다. 인기 장소였던 고라금은 아쉽게도 데크가 없어졌다.

교통

대전항에서 신한해운의 웨스트프론티어호가 1일 2회(08:00, 14:00) 운행한다. 외연도까지는 대략 2시간 10분이 걸린다.

숙소

독채 펜션인 외연도노을펜션(010-8758-5017)이 있고, 외연도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여관(041-931-5750)이 있다.

맛집

상록수림상회(041-935-9311)에서 활어회와 영양솔밥을 먹을 수 있다. 외연도어촌계 식당도 괜찮다.

- 04 망재봉 아래 바다와 만나는 지점의 고래조지. 푸른 초지와 바다, 섬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 05 봉화산에서 본 소청도는 마치 고래가 헤엄치는 것 같다. 해무가 밀려오고, 시나브로 노을이 지면 몽환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 06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 텐트 밖으로 나오니, 휘영청 달이 떠올라 있다.
- 07 상록수림상회의 영양솔밥



섬 다이빙과 해변, 라군의 하모니

태국 꼬창

태국 꼬창에 대한 설명은 명료하다. 푸켓에 이어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 타이만 동쪽, 캄보디아 국경 가까이 위치한 꼬창은 15년 전만 해도 한국인에게 미지의 공간이었다. 다채로운 비치와 다이빙 포인트, 정글 트레킹과 반딧불이 체험을 간직한 섬은 연둑빛 산호바다처럼 서서히 변신 중이다.



Thailand Koh Chang



낮섬과 은밀함이 주는 설렘 때문에 태국 꼬창은 새로운 휴양지로 점차 부각되기 시작했다.

01

베일 벗어난 섬들의 국립공원

태국 꼬창은 덩치에 비해 외딴섬이다. 푸켓, 꼬사무이 등 태국 남부의 섬들이 명성을 얻을 때도 동쪽 끝자락의 꼬창은 베일에 싸여 있었다. 하지만 점점 배낭 여행객들과 북유럽 여행자들이 찾아들기 시작했고, 낮섬과 은밀함이 주는 설렘 때문에 태국의 새로운 휴양지로 점차 부각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한적한 섬을 열망하는 자유 여행자들이 꼬창을 찾는다. 섬은 다양한 개성의 비치들 지녔고, 5성급 리조트들이 해안을 차곡차곡 메우고 있다, 국립공원인 산호바다와 섬에서 펼쳐지는 다이빙은 청정함이 가득 묻어난다. 푸켓, 파타야처럼 모터보트들이 요란하게 달리는 것도 아니고, 물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꼬창의 ‘꼬’는 섬, ‘창’은 코끼리의 의미를 지녔다. 섬의 모양새가 코끼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섬

안에서 코끼리의 윤곽을 찾기는 쉽지 않다. 섬은 인근 50여 개 섬들과 함께 ‘무꼬창 국립공원’에 속해 있다. 꼬막, 꼬곳, 꼬와이, 꼬끄롬 등 크고 작은 섬들은 남쪽에 울망졸망 매달려 있다. 꼬창의 숨은 진가인 다이빙 체험은 섬들로 가는 길목 곳곳에서 펼쳐진다.



02



03

중급 리조트들이 촘촘히 해변과 다양한 피부색, 연령대의 이방인들, 그리고 분위기를 돋우는 라이브 밴드와 요란한 불춤 덕분이 아닐까. 꼬창의 거리 음식들도 대부분 이 해변 로드에서 맛볼 수 있다. 꼬창이 ‘제2의 푸켓’이라는 별칭을 얻은 데는 핫 사이까오 해변이 큰 몫을 했다.

꼬창의 은밀한 모래사장을 탐하는 여행자들은 남쪽으로 유유히 이동한다. 냇물과 바다가 만나는 크롱 프라오는 해변의 길이가 5km에 달한다. 파도는 잔잔하고 야자수는 빼곡하며 리조트들은 독립해변을 갖춘 채 등성등성 자리해 있다. 최근에는 크롱 프라오 남쪽에 매달린 핫 까이배 해변이 좀 더 아담하고 한적한 분위기로 사랑받는다.

자유 여행자들의 성지는 일명 ‘론리 비치’로 불리는 핫 타남 해변이다. 핫 타남은 해 질 무렵이면 오히려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해변 돛자리에 몸을 의지한 채 일몰을 감상하려는 청춘들이 이곳 비치를 찾는다. 타이거 맥주 한 잔 기울이며 서서히 젖어 드는 붉은 해변을 탐미하며 고독을 향유하는 게 핫 타남의 묘미다.

섬의 중앙은 카오 쌀락펫 산(740m)을 중심으로 열대우림이 빼곡하다, 섬 주변으로는 해안도로가 뻗어 있다. 꼬창을 대표하는 해변과 포구는 서쪽 바다를 따라 해풍을 맞으며 이어진다. 한적한 숙소를 택한 뒤, 대중교통인 송태우를 타거나 스쿠터를 빌려 수려한 비치를 방문하는 게 꼬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일과다.

석양이 빛나는 핫 타남 해변

섬 서북단의 핫 사이까오는 ‘화이트 샌드 비치’로 불리는 북적이는 해변이다. 육지인 뜨랏에서 페리를 타면 단카오 선착장에 도착하는데, 단카오에서 가장 가까운 비치가 핫 사이까오다. 이 해변을 보고 있으면 푸켓의 모습이 언뜻언뜻 떠오른다. 레스토랑과 술집,



04

- 01 꼬창 일대 바다는 몰디브 못지 않은 아름다운 라군을 간직하고 있다.
- 02 열대의 숲이 어우러진 비치
- 03 코끼리 조각이 테마인 리조트
- 04 질푸른 하늘과 바다를 품은 꼬창의 해변

해변 인근에는 배낭여행자들을 위한 방갈로 숙소가 들어서 있다. 세월이 흐르며 핫 타남은 배낭 여행객들을 위한 모습으로 변모했다. 지금 핫 타남은 해가 저문 뒤 외로운 청춘들이 밤늦도록 파티를 펼치는 ‘핫’한 명소로 이목을 끌고 있다.



06

다. 코랑에는 리조트 없는 천연의 백사장 해변이 세 곳이나 있다. 시끄러운 도심에서 벗어나고 싶어 좀 더 멀고 호젓한 꼬막, 명품 리조트가 들어선 꼬꿏 등을 택하는 여행자들도 늘었다.

배를 타고 꼬창의 앞바다로 나섰다면 태국의 바다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뀐다. 섬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산호군락이 있고 몰디브에서 볼 수

다이빙, 정글 투어 체험 천국

남쪽 포구 방바오는 꼬창을 대표하는 어촌마을이다. 꼬창의 다이빙이 유명해지면서 마을은 분주해졌다. 꼬막, 꼬와이 등 인근 섬으로 가는 선박들의 기항지가 됐고 스노클링, 다이빙 투어를 위한 배들도 이곳에서 출항한다. 나무데크 선착장에는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고급 해산물 레스토랑들이 들어섰다.

방바오에서 섬과 바다로 나서는 호핑 아일랜드 투어가 진행된다. 꼬와이, 꼬탈랑, 꼬약, 꼬랑 등 네 개의 섬을 방문해 스노클링, 카약 등을 즐기는 일정이 대세



05



07

있다는 연둛빛 라군이 펼쳐진다. 국립공원 지역인 이곳은 살아 있는 산호들이 가득해 열대어의 소중한 서식처가 됐다.

꼬창의 체험은 해변과 섬에 머물지 않는다. 정글 트레킹 중 폭포를 만나고, 나룻배를 타고 반딧불이와 조우하는 흥미진진한 여정이 기다린다. 꼬창이 간직한 7곳의 폭포 중 크롱 플루 폭포와 탄 마음 폭포는 트레킹으로 연결된다. 크롱 플루 폭포는 크롱 프라오 해변에서 가까우며 폭포 아래에서 헤엄치는 체험이 인기다. 탄 마음 폭포는 예전 태국의 왕들이 찾은 왕실 명소로 태국인들도 즐겨 방문한다.

꼬창의 숨은 체험들은 신비로움을 한층 더 완성시킨다. 반롱탄 등의 습지에서 나룻배를 타고 냇물을 거슬러 밤하늘의 별과 함께 반딧불이를 만나는 체험은 잊지 못할 열대의 밤을 선사한다. 남동쪽 살락펫, 살락콕 일대에는 맹글로브 숲 산책로가 이어져 있고, 다이빙 기항지로 변한 방바오와 달리 살락펫 지역은 꼬창의 살가운 어촌마을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Tip 꼬창 가이드

방콕에서 뜨랏공항까지 항공편이 운항하며, 뜨랏공항에서 페리 선착장으로 이동한 후 꼬창으로 향하는 배를 탄다. 방콕에서도 뜨랏 선착장까지 가는 버스가 있다. 리조트에서 공항과 숙소를 잇는 교통편을 제공하기도 한다. 섬 안에서는 승합 트럭인 송태우가 다닌다.

숙소는 가격대에 따라 다양하다. 핫 싸이까오 해변은 일반여행자, 크롱 프라오 해변은 가족, 론리비치는 배낭여행자들의 숙소가 들어서 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 차가 큰 편이다. 호핑 아일랜드와 반딧불이 투어는 리조트 등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다이빙 체험 가격은 이용하는 선박,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며 선상 뷔페가 곁들여진다. 국립공원 지역에서 다이빙을 하거나 유명 폭포 등을 방문할 때는 별도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꼬창에서는 게와 새우 등이 어우러진 해산물 요리가 유명하다. 리조트에서 제공되는 조식과 타이마사지도 꽤 괜찮은 편이다.

- 05 섬들이 웅기종기 들어선 무꼬창 국립공원
- 06 열대의 숲을 가르는 정글 트레킹
- 07 크롱 프라오 해변의 탐스러운 일몰
- 08 꼬창의 별미인 해산물 요리



08

산이라서 좋고, 함께라서 행복한

‘금지산악회’의 남도 백운산

섬진강 자락에 있는 광양 백운산. 웬지 꽃구름 이는 부드럽고 나지막한 산일 듯하지만, 호남정맥이 마지막에 일으켜 세운 덕에 1,000m가 훌쩍 넘는 준봉이다. 무더위의 한가운데 백운산에 오르겠다고 다섯 사내가 모였다. 지난달 설악산에 오른 기세를 몰아 비를 뚫고 백운산에 올랐다.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白雲山

※ IBK산은 등산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였습니다.



01

계곡에서 놀고 맛있는 것도 먹자 해서

비가 예보되어 있었다. 이미 오랜 기간 비가 내렸고, 산행 당일에도 비는 내릴 것이었다. 다만 양이 많진 않을 것이라 해서 산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무더위의 한가운데라 어차피 땀을 비 오듯 흘릴 테니까.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니 산행 중에도 상황을 지켜 보기로 했다.

사실 이 정도의 비라면 문제 될 게 없다. 1,222m에 달하는 높이와 너덜의 경사로도 딱히 문제 될 게 없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 건 없다. 뜨거운 우정과 넘치는 에너지로 즐겁게 오르면 그만이다. 우린 IBK 금지산악회니까.

하남공단중앙지점 나병현 대리는 산, 특히 'IBK산'을 잘 안다. 평동공단지점에 있을 때 조계산에도 올랐고, 올해 초에도 무등산에 올랐다. 두 산행의 공통점이라면 빗줄기가 거뒀다는 건데, 그럼 혹시 오늘의 이 비도? 어쨌거나, 나병현 대리가 동기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뒹, 산도 타고.”

동기 5명이 전국에서 모였다. 본사 외환사업부 김권우 대리와 화성병점지점 남춘호 대리, 부산역지점 장우석 대리, 인천원당지점 강동일 대리가 흔쾌히 응했다. 신입 때부터 함께 한 인연이고 기수 이름이 'IBK 금지'였기에 모임 이름도 자연스럽게 '금지산악회'가 되었다.

이들은 꼭 산행이 아니어도 반기에 한 번 정도는 모였다. 동기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방방곡곡을 돌며 안부를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게임도 하며 친목을 다졌다고. 그중에서도 산을 좋아하는 동기들끼리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기도 했단다. 나병현 대리는 지난 1월, 무등산 산행을 시작으로 상반기에만 한라산과 설악산을 올랐다. 남춘호 대리는 첫 산행을 설악산으로 시작했다고. '금지산악회', 꽤 무시무시하다.

각자의 산행 준비를 능숙하게 마친 후, 간단하게 몸을 풀고 산에 들어섰다. 점점 짙어가는 녹음 속으로, 가볍게 훌쩍이는 빗줄기 속으로.

호남정맥의 마지막 봉우리, 백운산

백운산,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을 마다하는 이가 있을까, 그래서 '백운산'만 우리나라에 50개가 넘는다.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전라남도 광양의 백운산은 높이나 규모에 있어서 말형에 속한다. 백두대간 지리산에서 시작된 금남호남정맥이 다시 금강을 향하는 금남정맥과 섬진강을 따라 이어지는 호남정맥으로 나뉜다. 호남정맥은 내장산과 무등산, 조계산을 거쳐 여기 백운산으로 솟구쳤다가 섬진강을 만나 사그라든다. 진틀마을에서 산의 서쪽을 오른다. 진틀마을은 '니평(泥坪)'이라고도 불렸다. 마을의 들녘이 진흙이라 그렇다. 산이 높고 험하니 비가 내리면 물이 갑자기



02



03

- 01 산행에 앞서 준비운동을 하는 IBK인들
- 02 오늘의 산행 루트를 확인하고 있다.
- 03 백운산은 반달곰 출현지로도 유명하다.
- 04 등산 초입, 아직은 뽕뽕한 IBK인들

불어나기 마련인데, 그 영향이 마을의 이름과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니나 다를까, 등산로는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데 물소리가 정말 웅장하고 시원하다. '신선놀음'의 유혹도 있었지만, 비 오는 날의 계곡은 피하는 게 상책이고, 되도록 서둘러 산행을 마쳐야 하는 까닭에... 어, 다들 어디 갔어? 그새 갔네.

“아, 중간에 굴러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동료들 덕분에 이겨냈더니 정상에서 있네요.” 부산에서 온 장우석 대리뿐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힘들었다며 거칠게 숨을 쉬었지만, 산행 내내 이들의 발걸음은 지친 기색이 없었다. 이들은 6월의 설악산 오색을 떠올렸는지도 모르겠다. 혹은 '언젠가의 지리산'을 위해 묵묵히 견뎠는지도.

설악산은 힘들었다. '언젠가 설악산'을 외치던 차, IBK 점프업 연수가 잡혀서 일정이 당겨졌다. 김권우 대리와 강동일 대리가 접수에 성공했고, 나병현 대리와 남춘호 대리는 휴가를 냈다. 오색에서 산행을 시작한 계



04

새벽 3시, 험하고 가파른 길이었지만 부러 웃고 애써 분위기를 북돋우는 등 서로에 기대어 정상에 올랐다. 당연히 하산 후 김권우 대리와 강동일 대리는 곧바로 연수에 참여했다. 무시무시한 산악회라니까. 설악에 비하면 수줍다 할 정도로 온화한 산세의 백운산. 어느새 너덜을 지나 능선에 올랐고, 신선대를 지나쳐 정상을 향했다. 약 500m 거리. 이미 온몸은 비에 흠뻑 젖었지만, 웃음소리는 텅 빈 산에 그치지 않는다. 백운산 상봉은 봉황과 여우와 돼지의 기운을 간직했다고 전해진다. 명예와 지혜, 부의 기운이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았을까. 어쩌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에 좋은 의미를 부여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거나 커다란 백운산에는 한라산과 지리산 다음으로 다양하고 많은 식물종이 분포하고 있고, '백운산 4대 계곡'에는 여름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식히니 무엇을 더 바랄까.



05



07

- 05 빗물을 머금은 폭포가 시원한 물줄기를 선보인다.
- 06 함께라 힘들지 않은 금지산악회
- 07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는 강동일-장우석 대리
- 08 정상을 향해 다시 한번 의기투합하는 IBK인들

광양 최고의 맛집을 독차지하고서

백운산은 전망 맛집이다. 그러지 않겠는가. 섬진강 건너는 지리산이요, 아래로는 한려수도가 펼쳐지니. 그 빼어난 풍광을 압도한 건 비구름이었다. 산을 타는 사람들은 흔히 '곰탕'이라 말하는데, 못해도 3년은 고아낸 듯하다. 정상석 말고는 보이는 게 없다. 돌아서기 전, 간단한 요기를 하기로 한다. 산에서 라면이 진리라면, 그걸 극대화하는 게 점보라면이다. 보온병에 담아온 물을 부으니 목욕탕 같은 용기에 라면이 맛있게 익어갔다. 비 추적추적 내리는 산 정상에서 친구들끼리 부대끼며 라면 드셔보셨는지. 산해진미를 물리는 맛이다. 최근 산행을 물었을 때 지난달의 설악산을 말했듯, 다음 산행을 물었을 때 이들은 '후지리산'을 말했다. 아, 뭔가 익숙한데 어색하다. 망지리산은 통영 사랑도에 있는데 후지리산은 뭘까?



06



08



09



11



12

“후지리산은 후지산과 지리산을 합친 말입니다. 하하. 한라산과 설악산을 올랐으니, 지리산도 당연히 한번 가야죠. 근데 외국의 산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가까운 일본의 후지산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아마 가을에 단풍 보러 지리산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언제 산이나 한번’이 아니다. 산을 좋아하고, 산에 오르는 고된 과정을 즐기고, 그 과정을 함께 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산에 올라 경치도 보고 박장대소도 터뜨리는, 모든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하다. 시간을 맞추고 일정을 조율해 산에 오르는 이유다. 그저 ‘소박’한 바람이 있다면 퇴직하기 전에 금지산악회 이름으로 대한민국 100대 명산에 다 오르는 것 정도랄까. 무시무시한 산악회, 맞네. 맞아.
 모든 옷과 온몸이 비와 땀에 젖은 건 아무래도 좋다. 등산화 속 양말에 빗물이 고여 자박자박해도 대수롭지 않다. 산이라는 즐거움, 함께여서 행복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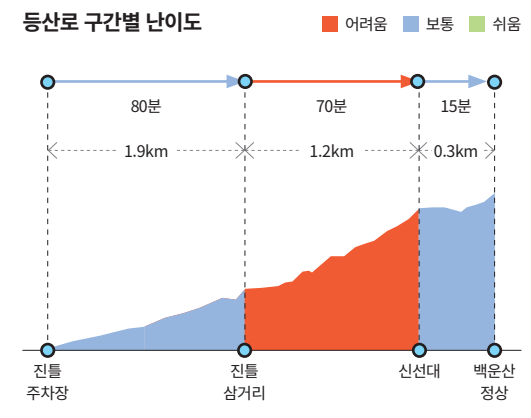
10



- 09 곰탕 같은 안개를 해치고 정상에 오르는 금지산악회
- 10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브이~
- 11 백운산 정상에서 먹는 라면은 누가 뭐래도 꿀맛이다.
- 12 정상석과 함께 포즈를 취하는 김권우 대리

백운산 INFO

-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 입산 시간** 상시 개방
- 코스** 진틀주차장 - 진틀삼거리 - 신선대 - 정상 (원점회귀, 약 7.2km)
- 문의** 광양시 산림소득과 061-797-3568



오늘은 내가 파티시에!

내 손으로 만들어
더 다디단 추억

그냥 먹어도 맛있는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먹는다면 어떨까?
19년을 함께한 이들이 조금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늦은 저녁,
케이크 공방을 찾았다. 생크림을
조심스레 바르고, 원하는 문구를
적으며 그들은 그날 하루를
행복으로 색칠했다.



Making a Cake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생크림 케이크

달콤하고 부드러운 생크림 케이크는 풍성한 크림과 부드러운 빵이 조화를 이루는 맛있는 간식이다. 입안에서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퍼지는 순간 행복함이 절로 깃든다. 생크림 케이크는 무언가를 기념하는 특별한 순간에 빛을 발한다. 생일, 결혼식, 졸업식 등의 소중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저녁 7시, 송탄지점 방재연 차장, 남동인더스파크지점 안혜림 차장, 청계7가지점 정자영 차장, 호계동지점 조영지 차장이 케이크 공방으로 모였다. 네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해사한 미소를 지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저희 넷이 같은 시기에 입행했어요. 결혼 전에는 자주 만나 우리만의 시간을 가졌는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오랜만에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 이벤트를 신청했어요. 제 생일을 스스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웃음).”



네 사람은 만난 지 올해로 19년이 됐고, 내년 3월이면 20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기념해 얼마 전에는 베트남으로 함께 여행도 다녀왔다. 베트남 이야기가 나오자 네 사람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가족과 떨어져 자유시간을 가져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도 그랬지만, 다들 결혼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사진도 맘껏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속 깊은 대화도 나누며 보냈는데, 그동안 고생했다고 주는 선물 같은 여행이었어요.”

안혜림 차장의 말에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방재연 차장이 말을 이었다.

“입행 동기로 만났는데, 각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일도 하고 육아도 하면서 워킹맘의 비애, 직장인의 비애를 나눈 삶의 동지가 됐어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친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벤트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IBK기업은행 창립 63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네 사람은 이를 기념해 예쁜 토퍼를 제작해왔다.

본격적으로 생크림 케이크를 만드는 수업이 진행됐다. 앞치마를 입은 네 사람이 테이블 앞에 섰다. 강사가 미리 만들어놓은 빵과 생크림이 준비돼 있었다. 방재연 차장과 안혜림 차장은 유명 브랜드 케이크를,

정자영 차장과 조영지 차장은 레터링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강사가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뒤 그릇 등의 도구를 나누어주었다.

즐거움 가득, 웃음 가득!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네 사람은 생크림을 각자의 그릇에 나눠 담았다. 부드럽고 풍성한 생크림이 네 사람의 눈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었다.

“가장 먼저 빵 위에 시럽을 촉촉하게 발라주세요. 시럽을 너무 많이 바르면 눅눅해질 수 있으니 고루 퍼 바르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생크림 한 스푼을 빵 위에 올려주세요. 생크림도 고르게 퍼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스패츨러를 이용합니다. 스패츨러의 평평한 면을 이용하면 생크림을 고르게 바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스패츨러를 사용할 때는 손을 3시에서 6시 사이의 각도 사이에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사가 시범을 보였다. 빵에 하얀 생크림이 순식간에 발려졌다. 네 사람이 동시에 “와~”하는 감탄사를 쏟아냈다. 네 사람이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오~ 신기해!”, “이거 재밌다” 그리고 각자 숨씨를 발휘하며 흥미진진한 순간을 만끽했다. 생크림을 바른 후에는 빵의 가운데를 파내어 레몬커드를 넣고 다시 편평하게 만드는 작업이 진행됐다.



“총 3장의 빵이 사용됩니다. 지금 하신 과정을 두 번 더 반복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애벌 아이싱 과정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네 사람의 손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신경은 온통 손끝에 집중되고 말수도 서서히 줄어들었다. 적막을 깬 건 조영지 차장이었다. “정자영 차장이 정말 잘하는데?” 그 말에 작업에 열중하던 방재연 차장과 안혜림 차장이 고개를 들어 정자영 차장의 작업을 바라봤다. “내가 빵집 딸이잖아!” 정자영 차장의 말에 세 사람이 유쾌하게 웃었다.

이제 케이크의 옆면을 생크림으로 바를 차례. 마찬가지로 스페츨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에서 중요한 건 빵에 스페츨러가 닿으면 절대로 안 된다. 네 사람의 얼굴에 잠시 긴장감이 엿보였다.



20년 우정, 생크림 케이크로 완성되다

다음은 생크림이 퍼 발라진 케이크에 좀 더 부드러운 생크림을 올리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사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작업이다. 정자영 차장과 조영지 차장은 생크림에 색을 넣어 원하는 색을 조색해 발랐고, 방재연 차장과 안혜림 차장은 하얀색 생크림을 그대로 사용했다. 네 개의 물레가 조심스럽게 돌면서 케이크 모양이 점점 갖춰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케이크를 꾸밀 차례다. 정자영 차장과 조영지 차장은 짤주머니에 생크림을 넣어 짜내면서 모양을 만들고, 버터크림으로 레터링을 시작했다. 브랜드 로고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한 방재연 차장과 안혜림 차장은 로고를 케이크 위에 그리고 난 후 검은색 버터크림으로 면을 채우는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을 이어 나갔다. 방재연 차장이 IBK기업은행의 63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쓰자 세 사람이 “여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20~30대 청춘을 함께한 IBK기업은행은 네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

“저는 IBK기업은행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친구들도 만났고요. IBK기업은행은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입니다(웃음).”

정자영 차장의 말에 나머지 세 사람이 깊이 공감했다. 이어서 안혜림 차장은 “IBK기업은행은 인생의 동반자고, 우리 네 사람은 IBK기업은행을 통해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진심 어린 바람을 전했다. 이어서 분위기 메이커 조영지 차장이 “뽏뽏했던 우리가 IBK기업은행과 함께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라고 한마디 해 모두를 미소짓게 만들었다.

정성을 다해 만든 생크림 케이크를 보며 네 사람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생각보다 완성도 높은 케이크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다. 네 사람의 20주년을 미리 축하하는 오늘의 자리, 네 사람은 오래도록 우정을 쌓아가자며 서로를 축하하고 응원했다.

IBK버킷리스트 미니인터뷰

케이크를 사서 먹기만 하다가 직접 만들어보니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걸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하는 작업이어서 힘든 줄 모르고 재밌게 했습니다. 즐거운 추억 한 페이지를 간직할 수 있게 돼 행복합니다.

송탄지점 방재연 차장

난생처음 해보는 경험이라서 재밌었습니다. 작업하는 내내 만들기 수업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더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과 함께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남동인더스파크지점 안혜림 차장

평소 잘해보지 못하는 경험이라 소중한 추억이 될 듯 합니다. 케이크 하나를 완성했다는 것만으로 뿌듯하고 즐겁습니다. 집에 빨리 가서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엄마가 만든 빵을 아이가 맛있게 잘 먹어 주겠죠?

청계7가지점 정자영 차장

케이크를 만드는 특별한 경험을 소중한 사람들과 하게 돼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케이크에 레터링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예쁘게 완성된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가족과 나눠 먹으면서 생크림의 부드러움과 달콤함을 맘껏 즐겨볼 생 각입니다.

호계동지점 조영지 차장

바다를 끌어안을 때 보이는 것들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IBK UTS'

- 1. 금융소비자보호부 최성진 차장
- 2. 대림동지점 윤동근 팀장
- 3. 답십리지점 이연주 대리
- 4. 금융소비자지원부 양윤석 과장
- 5. 감사부 이승진 대리
- 6. 보라매지점 박수현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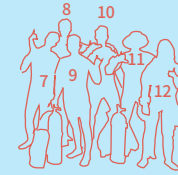


바닷속 잔잔한 물결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언제 봐도 신비하다. 영화 같은 장면은 쉬이 만날 수 없지만 어쨌든 낯선 풍경이 주는 평화로움과 그걸 천천히 지켜볼 수 있다는 건 언제든 기분 좋은 일이다. UTS는 매년 여름, 이 즐거움에 푹 빠져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7. 의정부지점 오동식 대리
- 8. IT금융개발부 김민수 대리
- 9. LG광화문지점 이상인 지점장
- 10. 노원역지점 양승준 대리
- 11. 시흥지점 채세현 과장
- 12. 문래하이테크지점 신성하 대리



Q. 동호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IBK UTS(Under The Sea, 이하 UTS)'는 바다와 다이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로 1996년 창단된 'IBK기업은행 스킨스쿠버 동호회'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나가는 유서 깊은 동호회입니다. 재창단 당시에는 총 8명의 회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30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셨던 분들은 물론, 동호회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까지 다채로운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직접
들어가 본다면 더 허용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Q. UTS는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나요?

A. 스쿠버다이빙은 5~30m 깊은 바닷속을 짝(버디)과 함께 탐험하는 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때문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오랫동안 마주하는 동료들과 다이빙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 동호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해 다이빙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수영장 교육은 일반적인 실내 수영장이 아닌 5m 이상의 다이빙 풀에서 진행하며, 보통 한 달에 1~2회 정도 일정을 잡아 시간이 맞는 회원들끼리 연습합니다.

Q. 동호회 활동이 회사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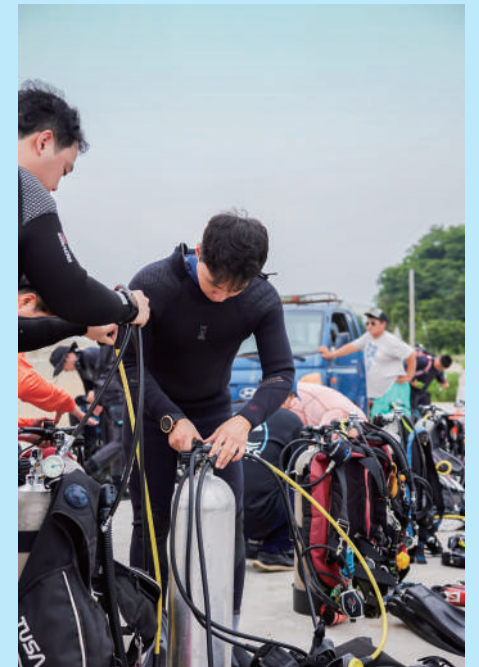
A. 동호회 활동은 회사생활에 있어 자양분 같은 존재입니다. 보통 답답한 일이 있으면 바다를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직접 들어가 본다면 더 허용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실 수 있는데 그 감정이 업무로 받은 스트레스를 단숨에 날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이빙은 평생 할 수 있는 취미인 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 생각의 폭 또한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Q. 혹시 가입 조건이 있을까요?

A. 물을 사랑하고, 다이빙에 대한 애정만 있다면 누구든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유자격자와 무자격자(비다이버)의 가입 조건이 다릅니다. 비다이버의 가입 조건은 바다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과 바다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또 비다이버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추어야 함께 바다를 유영할 수 있기에 전문적 교육이 가능한 시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자격 다이버는 위 모든 조건을 이미 갖춘 분들이기에 언제든지 가입 가능하십니다.

Q. 평소 연습 및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A. 스쿠버다이빙의 주 무대는 바다지만 매주 바다를 가기에는 시간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숙달되지 않은 다이버가 바로 바다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기에 평소에는 수영장 교육을 통



Q.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궁금합니다.

A. 해외에서 야간 다이빙을 했을 때 새근새근 자던 거북이를 만난 적 있습니다. 회원들의 설렘을 거북이도 느꼈는지 비몽사몽 잠에서 깨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회원들과 그 순간을 함께 공유했다는 것이 가장 큰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외에도, 빨판 상어와 함께 수영했던 순간, 사나운 트리거 피쉬와의 추격전 등 재밌고 짜릿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UTS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Q. 7월13일 개해제를 진행하셨습니다. 개해제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개해제’는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дай빙들을 추모하고 한 해 동안 안전한 다이빙을 기원하는 제례의식입니다. 국내 다이빙 동호회 대부분이 각자만

의 방식으로 ‘개해제’를 치릅니다. 이에 IBK UTS 또한 매년 ‘개해제’를 기점으로 한 해 다이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을 기원하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행사이기에 최대한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날짜와 장소 선정, 행사 진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바다의 신이라고 불리는 용왕님께 올해 다이빙도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도 있어 일반 제사처럼 제사음식 등을 준비합니다.

Q. UTS만의 소식지도 만들고 계십니다. 이 같은 소식지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스쿠버다이빙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스쿠버다이빙은 정말 즐겁고 후회 없는 스포츠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 소식지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주며
사고 없이 무탈하게 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다 젖은 채로 활동하다 보니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덕분에 소식지가 더 풍성해지고 스쿠버다이빙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회원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첫 번째는 당연히 안전 다이빙입니다. 대자연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인만큼, 모든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주며 사고 없이 무탈하게 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린 다이빙입니다. 자연을 빌려 즐거움을 얻은 만큼 그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회원들과 그린 다이빙을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회원들과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외 바다에서 활동하다 보니 외박과 휴가 문제로 기혼 직원보단 미혼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UTS는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오래오래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따! 즐따!

Q. 2024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벌써 2024년의 절반이 지났지만, 다이빙의 계절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 해 다이빙의 시작을 알리는 개해제도 지냈으니, 수영장과 동해에서 많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올여름은 아름다운 연산호 군락을 만날 수 있는 제주도 다이빙을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필리핀 말라파스쿠아로 투어를 생각 중입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셔서 2024년 멋진 바닷속에 안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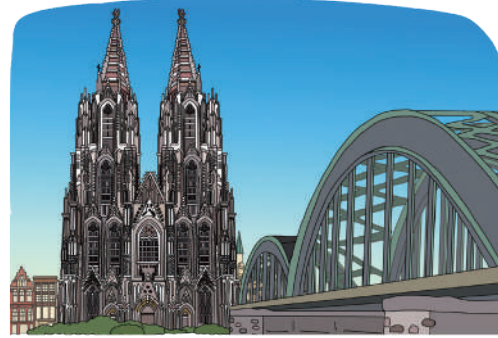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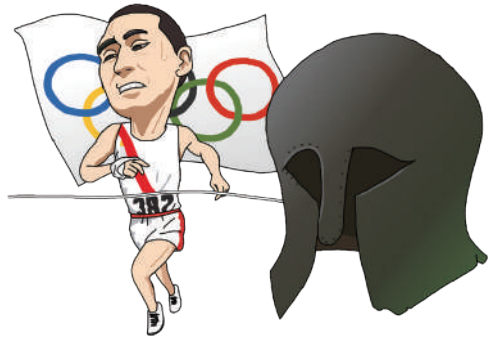
Q. 스쿠버다이빙에 관심이 있으나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IBK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수영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이 무서우셔도 괜찮습니다. 배테랑 회원들이 항상 옆에서 지켜드릴 겁니다. 스쿠버다이빙은 규정한 준수한다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푸른 바닷속에서 경험하는 아름다운 해양 생태계와 자유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August in History

8월에 일어난 이야기



Big Issue

8월, 세계 각국에선
또 어떤 일이?
한 줄로 보는
그날의 이슈

- 5일 1392년 이성계에 의해 조선 건국
- 6일 1991년 팀 버너스리가 월드 와이드 웹에 대한 아이디어 공개
- 8일 2008년 하계 올림픽이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
- 10일 1675년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완공
- 15일 1914년 파나마 운하 완공
- 16일 1653년 헨드릭 하멜 일행이 표류 중 제주도에 도착
- 24일 1456년 인쇄기를 이용한 첫 출판물 구텐베르크 성경 완성
- 28일 1749년 독일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탄생
- 31일 1897년 토머스 에디슨 키네토스코프 특허 취득

09day

손기정,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서 우승

손기정은 일제강점기 때 활약한 한국인 육상 선수이자 체육인으로 주 종목은 마라톤이다.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1회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 한국인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으며, 손기정은 이 대회에서 2시간 29분 19.2초를 기록해 당시 마라톤 올림픽 신 기록을 수립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손기정은 본인의 이름으로 출전하지 못했다.

14day

퀸스 대성당 완공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로마 가톨릭 성당으로 퀸스 주교좌 성당으로도 불린다. 퀸스 대성당은 높이 157.38m로 울름 대성당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로마네스크-고딕 양식 성당이다. 1248년에 짓기 시작해 1880년 완공됐다. 이 성당은 독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축물로, 성 바실리 대성당에 이어 199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20day

경부선 철도 기공식 개최

경부선은 경인선에 이어 건설된 한반도 2대 간선축이다. 대한제국 당시 건설된 것이나 기술이 부족했던 대한제국 정부는 영국, 일본 등에서 기술과 자금을 조달했다. 이에 일본은 1901년 6월 경부철도주식회사를 세워, 8월 20일에 서울 영등포와 부산 초량에서 착공식을 거행했다. 한편, 모든 경부선 일반 열차는 서울역에서 착발한다.

21day

<모나리자> 도난 사건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 중이던 모나리자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루브르 박물관 측은 도난 사실을 알게 된 후 일주일간 폐관했다. 진범은 작품의 유리 케이스를 만들던 직원으로, 그는 폐장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빗자루 옷장에 숨어 있다가 외투 밑에 그림을 숨겨놓고 걸어 나오는 방식으로 모나리자를 빼돌렸다. 이 사건으로 범인은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이날 이탈리아에선?

1173년 이탈리아 서부 피사에서 피사의 사탑으로 알려진 종탑 건설이 시작됐다. 착공 시에는 수직이었으나 13세기에 들어 탑의 기울어짐이 발견됐다.

이날 캐나다에선?

2003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 근본적인 이유는 퍼스트에너지 사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 버그로 알려졌다.

이날 모스크바에선?

1882년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이 모스크바에서 초연됐다. 초연된 장소는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으로 1930년대 스탈린이 철거했다.

이날 미국에선?

1878년 미국인변호사협회가 설립됐다. 해당 협회는 뉴욕시변호사협회를 본따 설립된 법조인 단체로 법률 개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 숙면 취하는 방법은?

낮에는 폭염에 시달리고 밤이면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여름이다.
하지만 충분히 수면해야 다음 날의 에너지가 생기는 법!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여름철 수면 꿀팁을 알아보자.



☑ 잠들고 싶다면 'J'처럼 행동할 것

우리 몸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열을 조절하는데, 여름에는 실내와 실외 온도 차가 커 열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자주 피로가 쌓인다. 하지만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일정 시간 이상의 낮잠은 피해야 한다. 특히 30분 이상의 낮잠은 수면 패턴을 방해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져 사람들이 늦게 자는 경향이 있지만, 일상적인 수면 시간과 활동 패턴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 패턴이 흔들리면 잠드는 시간부터 일어나는 시간까지 달라져 피로가 더 쉽게 누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덥다고 식사를 거르면 저녁에 배가 고파 잠을 못 자게 된다. **입맛이 없어도 저녁 식사는 거르지 않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가볍게 먹는 것이 좋다. 식사를 해도 배가 고파 잠이 안 올 때는 뇌를 진정시켜 주는 세로토닌이 들어 있는 우유를 마시는 것도 방법이다.**



☑ 스마트폰과 알코올은 잠시만 안녕~

더운 날씨에는 땀을 많이 흘려 수분 보충이 중요하다. 그러나 잠이 들기 직전에 과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높은 양의 카페인을 함유한 탄산음료는 잠들기 전은 물론, 일과 시간에도 피하는 것이 좋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는 **독서나 빨래 개기 등 정적이고 규칙적인 활동을 하다가 잠이 올 때 잠드는 것이 좋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은 당연히 피해야 한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몸을 긴장시켜 수면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모든 방법을 이용해 잠을 청해봐도 **너무 더워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양말을 냉동실에 보관해두었다가 자기 전에 신어 보자.** 발 온도가 떨어지면, 체온도 전체적으로 떨어져 조금 더 시원한 환경에서 잠을 청할 수 있다.

Tip 잠이 솔솔~ 불면증에 좋은 음식



시금치

트립토판이 수면호르몬 멜라토닌 생성을 도움



대추

뇌 호흡과 순환을 도와 신진대사를 촉진



키위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수면에 도움



아몬드

마그네슘이 숙면을 유도

매일 똑같은 회식은 이제 그만! 달라진 회식 풍경



직장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회식!
맛있는 음식도 먹고, 못다 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지만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회식을 바라보는 시선, 부정에서 긍정으로

직장인들에게 회식은 ‘소통의 장’이다. 평소에는 업무만 하던 동료들과 서로 대화하고 팀워크를 도모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회식을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느끼는 시각은 여전하다. 하지만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회식 문화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회식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간단하게 회식을 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아 생긴 결과로 보인다.

설문 결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직장에서의 회식 문화를 마음에 들어 하는 직장인이 2022년 45.9%에서 2023년 52.9%로 증가했다.** 직장 내 회식을 ‘즐겁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21.1%(2022)에서 24.7%(2023)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21.8%(2022)에서 24.7%(2023)로 증가한 모습도 확인됐다. 직장인들이 회식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술을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46.7%), 비교적 이른 마무리(40.6%), 화기애애한 팀·부서 분위기(35.9%)가 꼽혔다. 또한 회식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35.7%)도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강제 참석과 음주를 강요하던 회식 문화와 달리,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에서 회식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워라벨과 건강을 챙긴다

코로나19와 기업 복지 문화 확산 등으로 직장 내 회식 문화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퇴근 후 저녁 회식이 줄고, 점심 회식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하이브리드 워크와 자율 출퇴근제 등 새로운 업무 형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커졌고, 회식을 하더라도 2차와 3차로 이어지지 않고 1차에서 마무리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저녁 회식보다 점심 회식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변화 덕분에 회식 참여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중 점심시간을 활용한 회식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인력 채용 사이트에서 ‘어떤 형태의 회식을 원하는가?’라는 주제의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점심을 이용한 맛집 탐방’이 28.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회식의 형태가 점심시간을 이용한 맛집 탐방이라면, 퇴근 후 개인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과도한 음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줄어들어 건전한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기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퇴근 후 개인 시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형성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음주가무보다 경험의 질을 중시하는 회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술이 없는 건전한 회식문화를 주장하는 4050세대도 늘어나고 있어 기업들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고,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회식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의 취향을 잃어 회식 갈등 줄인다

전체 회식을 외치던 회식 문화는 이제 소규모 모임과 사내 동기, 친구와의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직장인들이 소소하게 모여 관계를 더 끈끈하게 이어가려는 니즈가 포함되어 있다. **마음 맞는 선배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영화 감상, 소규모 게임 등 문화 관람으로 대체하는 ‘문화 회식’으로 회식의 범위가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스타트업은 저녁 회식 대신 방탈출 게임 등을 진행하고 있다. 팀원들끼리 조를 나눠서 승패를 가리는 식으로 팀 단합 및 유연한 사고 체계 구축에 도움을 준다. 또 몇몇 기업들은 올바른 회식 문화를 위해 절주 캠페인, 원데이 클래스,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술을 마시지 않는 회식이 점점 늘어나면서 한 대기업에서는 회식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랑 팔찌’를 도입했다. 음주 의사를 3단계로 나눠 빨간색(안 마심), 주황색(적당히), 파란색(끝까지) 팔찌를 착용해 맞춤형 회식을 진행 중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회식 문화가 앞으로 더 유연해질 것이라 전망한다. 회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회사와 구성원의 선호에 따라 형태가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미영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만큼, 회식이 조직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며, “회사의 문화와 구성원의 선호에 맞춰 회식의 형태를 결정해 좋은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방식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해 탄탄한 미래를 신탁부

신탁은 영어로 Trust다. 신뢰, 신임을 뜻하는 영어단어처럼 신탁부는 자신을 믿는 고객에게 언제나 믿음으로 보답한다.

IBK기업은행 파이낸즈타워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36년째 올곧은 마음으로

IBK기업은행은 1988년 4월부터 36년째 신탁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신탁’이란 고객이 맡긴 재산을 안전하게 운용, 관리, 처분해주는 자산관리 방법이다. 이 중 금전신탁은 신탁재산이 금전인 신탁으로, MMT·채권형 등의 특정금전신탁, 연금저축신탁과 같은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나뉜다. 금전 외 신탁(재산신탁)은 신탁재산이 금전채권, 부동산 등 금전이 아닌 신탁을 말하는데 이러한 금전신탁과 금전 외 신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종합재산신탁’이라고 한다. 이처럼 신탁부는 고객의 다양한 자산을 고객이 원하는 신탁상품으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고객들의 통합자산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탁부는 총 25명, 4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다. 신탁운영팀은 신탁상품의 선

정과 운용을 담당하고, 신탁지원팀은 규정·제도를 총괄하며 Middle/Back Office 업무를 맡고 있다. 신탁상품팀은 ETF·연금·ISA 등 다양한 상품을 담당하고, 재산신탁팀은 부서 기획과 재산신탁 업무를 수행한다. 이 4팀은 ‘고객의 든든한 자산관리 파트너’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항상 협력하고 있다.

**신탁부는 ‘고객의 든든한
자산관리 파트너’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항상 협력하고 있다.**

신탁상품팀



신탁운영팀

Cooperation

부서원 합심으로 업계 TOP5 진입

신탁부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 중이다. 본부 직접 마케팅을 통해 대기업 및 증권사의 대규모 MMT 자금을 유치해 수익과 잔액을 증대시키며, 올 상반기 사상 최대 M/S 비율인 12.08%를 달성한 바 있다.

또 판매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여 투자 상품 선택의 폭을 크게 확대했으며, 지난 5월에는 ‘IBK 내똥대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해 부동산 등 금전 외 재산도 신탁할 수 있는 종합재산신탁 분야에 진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전략으로 편입 가능한 자산을 확장하고 신상품 출시 및 금전신탁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개선했으며, 신사업 진출 기반도 마련했다. 그 결과, 신탁업

계 ‘TOP 5 진입’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전 부서원이 합심해 영업현장 지원에 힘쓴 노력이 깃들여 있다.

신탁부의 업무는 자산운용(Front), 리스크 관리 및 감사(Middle), 자금 결제 및 결산(Back)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뉘는데, 은행 본점 여러 부서가 수행하는 업무를 신탁부 내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다. 신탁업 특성상 은행 계정과 분리된 신탁 계정으로 자산관리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신탁부는 모든 구성원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율적 의견 개진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덕분에 부서원들 또한 그 어느 부서보다도 ‘소통’이 활발한 부서라 자부한다.



신탁지원팀

Sense Of Duty

비이자수익 확대를 목표로

신탁부는 이익부서답게 ‘비이자수익 증대’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기존 주 수입원이었던 MMT를 본부에서 직접 마케팅해 대기업·증권사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ETF 특정금전신탁 상품 라인업을 추가하고 외화발행어음, 원화 DLB 등 시장 상황에 맞는 상품을 신속히 공급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금전신탁 위주의 사업을 영위했다면 올해 출시한 ‘IBK 내똥대로 유언대용신탁’을 시작으로 금전 외 신탁사업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포트폴리오를 꾸준히 개선하고, 고객 니즈 충족과 더 나아가 규제 완화 시, IBK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업승계신탁’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초석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탁부는 부서원을 대상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등 업무 연관 자격증 취득을 적극적으로 권장 및 지원하고 있다. 또 직원 간 자발적인 스터디 및 자료 공유를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 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부서 내에서 총 4개의 신탁 관련 CoP를 운영해 신탁 전반의 업무 흐름을 공유함으로써, 업무이해도를 높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심어주고 있다.



올해 출시한 ‘IBK 내똥대로 유언대용신탁’을 시작으로 신탁부는 금전 외 신탁사업에도 적극 진출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63주년을 축하해주는 신탁부 직원들



믿고 맡길 수 있는 신탁부 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객 자산관리 니즈가 부(富)의 '축적(蓄積)'에서 '이전(移轉)'으로 변화하고 있어 고객의 모든 재산을 종합적, 장기적으로 믿고 맡기는 '종합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강조되고 있다. 신탁부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유가증권 등 고객의 모든 재산을 종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업승계와 관련해 의결권 제한 완화, 상속공제 확대 등 규제 완화 시 신속하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신탁부는 IBK기업은행 고객이라면 누구나, 어떤 자산이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속 성장할 계획이다.



Trust

재산신탁팀



**신탁부는 IBK기업은행
고객이라면 누구나,
어떤 자산이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속 성장할 계획이다.**



Mini Interview



신탁부
김진희 부장

고객과 Win-Win 하는 신탁부

신탁부는 신탁의 전 과정에서 '고객이 만족할 만큼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 스스로가 업무에 열정을 느끼고 경쟁력을 키워 고객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신탁'은 고객과 은행이 Win-Win 할 수 있는 자산관리의 미래인 상품입니다. '신'명나게, '탁'월하게, 신탁사업을 탄탄히 잘 키워 고객님의 신뢰에 항상 보답하는 든든한 자산관리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힘차게!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는 여름입니다. 특히, 8월은 열대야로 인해 밤잠 이루기 더욱 어려운 계절입니다.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 '신'선하고 '탁'트인 휴가지에서 휴식을 취하며 훌훌 털어버리세요. 우리 신탁부도 휴가지의 시원한 바람처럼 언제나 고객분들에게 뽕뽕송송한 하루를 선물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김진희 부장



달다달고단

양희재 대리



최고의팀원

나대희 대리



신뢰와공정

강다현 대리



신탁판판세



재산
신탁팀

윤덕성 팀장



모두가소중

최신일 차장



끈끈한팀원

유동현 과장



행복한일터

윤명진 팀장



신탁중아보

김현우 차장



좋은사람들

서성모 과장



신탁재밌다

김민진 대리



완벽한조향



신탁
운용팀

구남호 과장



신뢰가가득

박창민 대리



재밌는업무

엄재빈 대리



신뢰와팀원

김혜정 대리



따뜻한선배

홍유정 대리



팀워크최고



신탁
지원팀

허단샘 팀장



손발이착착

신진홍 과장



사랑이넘բ



신탁
상품팀

김종률 팀장



풍부한유대

박상준 차장



한마요한팀

강나루 차장



풍풍유대감

김정업 과장



희망은가족

양연수 대리



웃음보따리

김종훈 대리



희나는덕려

정소영 대리



따뜻한응원

커피향으로 세상을 풍부하게 만들다

(주)카페뮤제오 서동의 대표
염창동지점 거래 기업



커피는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하나의 예술이다.
그윽한 향기와 감미로운 맛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매개체다.
2002년 설립된 (주)카페뮤제오는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를 선도하며 커피 문화의 지평을 열어오고 있다.

- 2024. 07 ○ 스타벅스 25주년 비알레띠 굿즈 출시
- 2022. 12 ○ 창립 20주년 행사
- 2021. 04 ○ 성수동 사옥 확장 이전
- 2019. 09 ○ 2019 KCRC (커피로스팅챔피언) 수상
- 2018. 07 ○ HACCP 인증 취득
- 2017. 10 ○ 용인 물류센터 및 로스팅센터 건립 이전
- 2017. 01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06. 04 ○ (주)뮤제오 법인 변경
- 2003. 03 ○ 카페뮤제오 사이트 오픈
- 2002. 12 ○ 카페뮤제오 사업 출범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를 넓히다!



2002년 12월 설립된 (주)카페뮤제오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의 지평을 넓혀온 기업이다. ‘카페뮤제오’는 ‘커피 박물관’이라는 뜻으로, 기업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 커피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커피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회사가 설립된 2002년만 해도 원두커피가 보편화되기 전이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커피, 프러마, 설탕으로 조합된 인스턴트커피를 즐겨 마셨고, 개인 취향에 따라 커피에다 설탕과 프러마를 조절해서 마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보내준 이탈리아의 모카포트로 커피를 내려 마셨는데, 그 맛과 향이 오래 기억되더라고요. 모카포트 같은 커피 기구를 국내에 선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카페뮤제오를 설립했고, 2002년부터 커피나 관련 기구들을 수입해 온라인으로 국내에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카페뮤제오의 특징점

Step. 1

좋은 품질, 최상의 맛

매년 수많은 커피 샘플을 테스트하여 최상의 원두 선별, 그중 40여 가지를 선별해 제공

Step. 2

차별화된 생산관리시스템

2016년 커피 기업 중 선두로 해썬(HACCP) 인증

Step. 3

고객과의 활발한 소통

커피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이벤트 개최

2002년은 전자상거래 초창기였다. 온라인 쇼핑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다.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돈을 지불하고 이후에 물건을 받은 경험이 없었기에 온라인 쇼핑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서동의 대표는 가장 먼저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일에 공을 들였다.

“운영 초기에는 제품과 함께 친필 엽서를 동봉해 회사의 진정성을 전달했습니다. 또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상세한 사용법을 콘텐츠로 만들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했죠. 덕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쇼핑몰을 이용하는 충성 고객뿐만 아니라 (주)카페뮤제오의 직원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쇼핑몰의 회원 수는 25만 명 정도입니다. 지금도 VIP 고객 대상으로 명절마다 손 편지를 써서 보내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수입하는 다양한 원두와 함께 여러 종류의 커피 추출 도구가 보편화되었다. 이는 공급 업체들이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 커피 생산국에서 품질 좋은 원두를 수입하고, 최신 커피 기기와 도구를 제공해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를 다채롭게 발전시킨 덕분이다. 그 선구자 역할엔 바로 (주)카페뮤제오가 있다.

커피의 다양성, 신선함, 최고 품질을 위한 끝없는 노력



(주)카페뮤제오는 2006년부터 커피 가공 사업을 시작했다. 용인에 자리한 1,100평 규모의 물류센터 안 로스팅센터에서는 47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원두가 로스팅된다. (주)카페뮤제오는 당일 로스팅,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데, 판매하고 남은 커피는 50g씩 담아 쇼핑몰 고객들에게 ‘샘플 커피’로 보낸다. 고객들이 새로운 커피를 접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시작된 서비스다.

“어찌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kg을 볶든 1톤을 볶든 시간은 비슷하게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먼저 고려했다면 47가지의 원두를 매일 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맛있고 신선하고,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고객들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를 비롯한 로스터들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커피를 매일 볶고 테스트 하면서 로스팅 실력은 그 누구보다 월등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주)카페뮤제오에는 네 명의 로스터들이 근무하고 있다. 커피인들의 축제인 ‘코리아커피로스팅(KCR)’의 우승자도 근무하고 있어 월등한 로스팅 실력을 자랑한다.

(주)카페뮤제오는 코스타리카 세계 커피 품질 대회 CoE(Cup of Excellence)에도 매년 참가한다. 원산지의 농장 규모가 크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품질이 좋아서 거래하고 있는 곳이 CoE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서동의 대표는 단순히 원두와 커피 제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제품을 선보이려고 애쓴다. (주)카페뮤제오의 일부 스페셜티 커피의 경우 생산량이 적어 수지탄산이 맞지 않지만, 고객들에게 다양한 커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판매하는 식이다. 서동의 대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품질이 좋은 스페셜티를 찾기 위해 현지 농장을 투어, 원두를 직접 선별하고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현지에서 커피 샘플만 700개 정도를 테스트해서 평가하고 그중 40여 개를 선별해 국내에 유통했다. 또한 서동의 대표는 고객들에게 커피에 관한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커피와 관련된 기구를 선택할 때도 브랜드 가치가 있고 커피 문화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이템 위주로 선정한다.

맛있고 신선하고,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고객들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커피에 대한 진심이 담긴
카페뮤제오의 커피 철학**



(주)카페뮤제오는 커피 문화를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설립 목적처럼, 마셨을 때 기쁨을 주는 커피, 곁에 두었을 때 행복해지는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커피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Culture must be rich’라는 말이 있듯이, 문화라는 것은 풍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풍부하다는 말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커피 문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거나 그 문화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려면 다양한 종류의 좋은 커피를 들여와서 상품화하고, 고객들이 맛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좋은 커피를 계속 소개하고 선보이는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카페뮤제오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고객들이 콘텐츠를 얻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커피 문화가 더욱 다채롭고 풍부하게 발전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동의 대표는 산지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건강하고 선한 유통 체인을 만드는 데도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가 커피 산지 농장들과의 신뢰와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산지에서도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여 생산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좋은 원두를 즐거운 마음으로 로스팅하여 소비자들에게 전하는 모든 과정에 (주)카페뮤제오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노력하는 이유다. 여기에는 기호 식품인 커피를 고객들이 애호 식품으로 여기며, 커피와 함께 행복한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길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다.

**IBK기업은행과 함께한다는 것은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Q. 대표님의 경영 철학이 궁금합니다.

A. (주)카페뮤제오는 커피와 관련된 모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합니다. 일에 대한 즐거움과 애정이 있어야 회사의 진정성이 고객들에게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가령 커피를 볶을 때도 정성을 들여야 커피의 제대로 된 맛이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듯이요. (주)카페뮤제오의 직원들은 스스로를 셰프라고 여기며, 자신이 만든 커피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급 커피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카페뮤제오의 전 직원들이 기업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가 고수하는 원칙을 함께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IBK기업은행과의 인연을 소개해주세요.

A. 사육을 염창동으로 이전했는데, 이전에 거래하던 은행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대신 사육 앞에 IBK기업은행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IBK기업은행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로스팅 제조시설을 설치하면서 IBK기업은행으로부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제조시설을 만들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IBK기업은행이 좋은 조건으로 지원해주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IBK기업은행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덕분에 많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려면 자금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IBK기업은행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든든한 IBK기업은행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주)카페뮤제오 서동의 대표

**커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진심으로
최고의 커피를 선물합니다.**



Q. 염창동지점을 소개해주세요.

A. 염창동지점은 강서구 도심의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플랫폼 중심의 유통 기업들로 재편되는 등 스마트하고 속도감 있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염창동지점 직원들도 새로운 업무 방식을 도입하며 빠르게 변화하고자 노력합니다. 특히 요즘 기업들은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컨설팅 제도와 홍보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염창동지점은 전 직원들의 뛰어난 컨설팅 노하우와 역량 덕분에 많은 고객이 만족하십니다.

Q. (주)카페뮤제오의 비전과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주)카페뮤제오는 커피 문화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커피라는 분야의 전문성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커피를 단순한 음료가 아닌 문화로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카페뮤제오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여 최고의 커피 품질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주)카페뮤제오의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커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서동의 대표님과 전 직원분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주)카페뮤제오는 커피의 문화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고객들과의 소통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저 또한 (주)카페뮤제오 덕분에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카페뮤제오로 인해 더 많은 커피 덕후가 생겼으면 하고, (주)카페뮤제오가 더욱 승승장구하며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염창동지점 고성재 지점장



IBK가왕 시즌3 이태영 대리

노래로 쓰는 오늘의 기억

포항남지점 이태영 대리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창립 63주년 맞이 'IBK가왕 콘테스트 시즌3' 영예의 1위는 3번 도전자 '허각 동생 허격', 이태영 대리가 차지했다. IBK가왕 콘테스트에 도전하던 때를 떠올리며 녹음실을 찾은 그는 많은 IBK인들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 목소리로 대신 답해주었다.





용기 내 도전했던 첫 가왕 콘테스트

지난 6월 7일, IBK가왕 콘테스트 시즌3 TOP10이 공개됐다. 지점도, 이름도 공개되지 않고 오로지 목소리로만 대결하는 IBK가왕 콘테스트. 전국의 IBK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울린 단 하나의 목소리에 투표를 청했다. TOP10 모두 매력 있는 목소리와 훌륭한 실력을 보여주며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시즌3 IBK가왕이 탄생했다. 허각 본인도 자신의 노래 중에 가장 어려운 노래로 꼽은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를 멋지게 소화한 허각 동생 허격, 바로 포항남지점 이태영 대리다.

“사실 IBK가왕 콘테스트 시즌1, 시즌2 모두 출전하고 싶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떨어지는 걱정부터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우연히 IBK 글로벌 봉사 활동 행사에 갔다가 시즌2 가왕인 송희상 대리를 만나게 됐죠. 그분께서 자신감을 갖고 출전해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한마디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번엔 걱정부터 하지 말고 도전해보자!’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TOP10에 함께 올랐던 분들 모두 훌륭한

실력을 보여주셔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왕으로 뽑히다니 정말 기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송희상 대리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또 이렇게 부족한 실력이지만 용기를 냈던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숨겨왔던 실력, 가왕으로 빛나다

양재동에 위치한 녹음 스튜디오에서 이태영 대리에게 가왕 출전 곡과 IBK기념은행 63주년을 축하하는 노래를 새로이 청했다. 허각의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는 수십 번을 불렀을까. 고음이 많은 노래이기에 듣기 싫지 않도록 음색과 분위기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이태영 대리. 그 디테일에 감탄, 녹음실 부스를 뚫고 나오는 목소리에 한 번 더 감탄했다. 그의 노래에는 수많은 연습과 노력이 묻어나왔고, 세심하게 신경 쓴 덕분에 편안하게 올라가는 고음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니냐”는 칭찬까지 듣게 했다. 첫 번째 곡의 녹음을 마친 그에게 이미 지점 안에서는 노래 잘하기로 유명한지, 언제부터 노래를 잘했는지를 물었다.

“사실 회식을 하더라도 노래방에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지점 분들은 제 노래 실력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저도 가왕 콘테스트에 출전했다는 걸 숨겼고요. 그런데 허각 동생 허격이 이태영 대리라며 제 목소리를



부족한 실력이지만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들켜버렸죠. 가왕이 된 후에 노래방에 같이 가자는 연락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웃음). 노래를 잘한다기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노래를 잘하시거든요. 어릴 때부터 만화 주제곡이 아닌 김범수나 김경호 노래를 부르며 아버지와 놀았던 게 지금의 실력을 만들어줬고, 정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슬플 땐 슬픈 노래를, 기쁠 땐 신나는 노래를 들으며 당시의 상황과 감정에 온전히 집중한다. 그리고 노래에 그 기억을 담아낸다. 나중에 그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기억이, 추억이, 감정이 오롯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노래는 '기록 저장소' 같다고 하는 이태영 대리. 오늘 열심히 부른 노래는 그에게 어떤 감정으로 남게 될까. 부끄러운 듯 수줍은 모습이지만 노래 부를 때만큼은 누구보다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 이태영 대리에게 IBK가왕은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삶의 기록이 되었다.

흥의 민족에게 노래는 빠질 수 없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흥의 민족이지 않을까. 음악, 노래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의 인기가 보여주듯 노래는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기는 소통 창구가 되는 것 같다. 이태영 대리에게도 마찬가지다. 노래에 진심인 한국인의 정서상 노래 실력과 상관없이 노래를 안 듣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며 노래를 통해 누구와도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새롭게 맺어지는 인연도 많은 것 같다고 한다. 노래를 통해 새롭게 맺어진 인연, 이태영 대리에게 IBK가왕이 그런 존재였다.

IBK가왕 콘테스트 시즌3가 이렇게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모두의 목소리가 빛났다. 이를 대표해 가왕이 된 이태영 대리에게 IBK기업은행 63주년을 축하하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청했다.

“IBK기업은행의 63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내온 역사가 직원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 다가올 기업은행의 행보도 너무 기대됩니다. 창립 63주년을 기념하며 ‘별이될께’를 여러분께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하겠다는 노래 가사가 늘 고객과 함께하겠다는 IBK기업은행과 약속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선정했습니다. 함께 노래를 들으며, 창립 63주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봅니다.”



무엇이든 들어보살

IBK가왕 콘테스트 시즌3 덕분에 무척이나 설레는 초여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가창력을 뽐내는 직원분들이 많아서 정말 놀랐고, 부족한 실력임에도 과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 노래를 응원해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아하는 음악처럼, 오랫동안 기억나는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은행 생활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남중지역본부 김지완 대리



힘지로 흑기사

나이가 40 중반에 접어들어 큰 결심을 하고 지원하게 되었는데 많은 관심과 투표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젊었을 때의 가창력보다 많이 약해진 것 같아 녹음하면서 아쉬웠지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목표에 대한 꿈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멋진 능력자인 IBK인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신기획부 이인호 차장



탕탕후루루루

평소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직원분들께 제 노래를 들려 드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른 참가자 분들의 노래를 들으며 ‘IBK에 가수가 정말 많구나’ 하고 감탄했고 이렇게 실력이 좋은 분들과 함께 TOP 10에 들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투표해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1등하는 그날까지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광양지점 이건희 대리



오식이 삼촌

쟁쟁한 직원 분들 사이에서 값진 결과를 얻게 되어 많이 기쁩니다. 업무로 지치고 바쁜 일상 임에도 마련해주신 좋은 이벤트 덕분에 새로운 활력을 얻고, 은행 생활에 또 파이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산관리사업부 백동석 과장

꿈임없이
성장하는



IBK항공 기업

IBK항공

마포

주얼리 마켓플레이스



비주얼

국내 1,600여 디자이너 주얼리 브랜드를 보유한 버티컬 플랫폼으로 원데이 배송이 가능한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



Bejewel.co.kr

IBK항공

구로

체험형 스포츠 게임



플레이레전드

시뮬레이션 야구 게임과 스크린 야구를 결합한 '레전드야구존', 스포츠 게임과 하드웨어를 결합한 체험형 게임 서비스 운영



legendheroes.co.kr

IBK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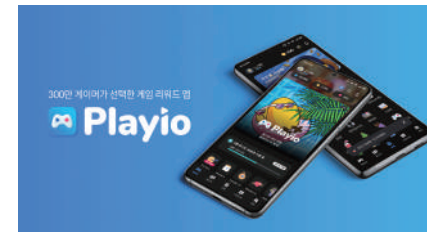
부산

플레이타임 리워드 플랫폼



지엔에이컴퍼니

사용자가 즐겨하는 게임을 이용하면 각종 리워드를 제공하고 재화로 교환할 수 있도록 구현한 애플리케이션



playio.co

IBK항공

대전

배터리 수명연장 서비스



배터플라이

EV 모빌리티와 배터리의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고 상태와 효율을 분석해 잔존가치를 높이는 기업



butterfly.co.kr

IBK창공
마포

주얼리 기반 버티컬 플랫폼



비주얼은 국내 1,600여 디자이너 주얼리 브랜드를 보유한 버티컬 플랫폼이다. '마마카사르' 등 주얼리 PB(자체 브랜드)도 다수 보유 중이다. 대부분 주문 제작을 통해 판매되는 시스템과 달리 원데이 배송이 가능한 풀필먼트 시스템 등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비주얼은 입점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하드웨어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각 분야 전문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입점 업체들을 지원한다. 일종의 통합 공급망을 통해 상품 품질 안정화, 마진 향상, 배송 서비스 개선 등 실효를 거두고 있다.

고객들의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압구정동에 플래그십스토어 '아몬즈랩'을 오픈, 현재 40여 개 브랜드가 플래그십스토어에 동참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 공장을 운영 중인 OEM, ODM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 입점사의 위탁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주얼리 콘텐츠도 강화했다. 애플리케이션에 '광고 속 아이템', '아몬즈 매거진', 'NOW ON' 등의 탭을 신설해 다양한 주얼리 관련 최신 정보와 아몬즈 직접 제작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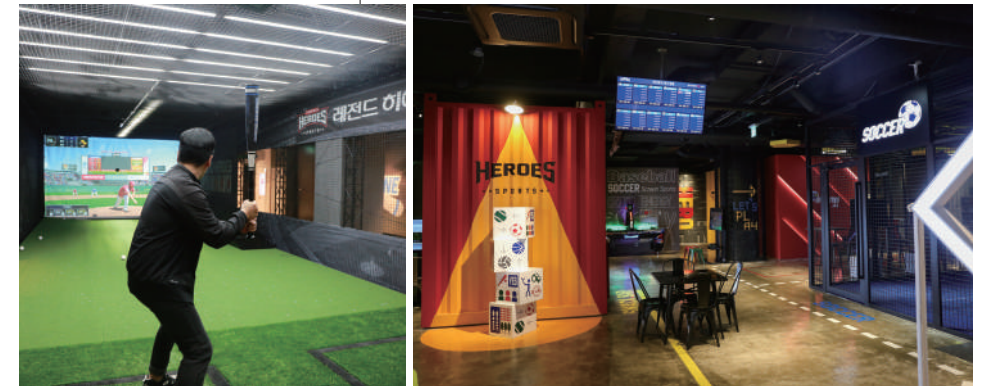
IBK창공
구로

스크린 스포츠의 새로운 시대



플레이레전드는 사용자와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감을 극대화하고 시뮬레이터의 풍부한 표현력과 입체감을 통해 몰입감과 현장감 제공한다. 자사 보유 콘텐츠는 총 36종이며 국내외 매장은 100여 개를 보유 중이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플레이레전드의 게임은 게임과 하드웨어, 인테리어를 결합한 체형형 스포츠 게임**으로, 핵심기술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물체의 실시간 각도와 속도, 비거리, 동작 결괏값을 산출하는 센싱 등을 유지보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플레이레전드는 해당 계절 및 기후에 상관없이 실제 운동과 같이 생동감 있는 플레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해외 직영점 및 가맹 사업까지 운영하고 있다. 플레이레전드는 향후 젊은 인구가 많아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후와 환경의 영향으로 대형 쇼핑몰 문화가 정착되어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직영점을 설치해 매출 및 이익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 카드, 볼링, 아케이드 게임, 푸드존 등 모든 경험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업을 모델링해 나갈 계획이다.



IBK항공
부산

게임 생태계의 선순환 서비스

GNA COMPANY
BE THE GAME CHANGER

지엔에이컴퍼니에서 운영 중인 플레이오는 사용자가 좋아하는 게임을 이용하면 각종 리워드를 제공하고 재화로 교환할 수 있도록 구현한 앱이다. 사용자는 플레이어를 설치하고 게임을 플레이하면 이용 시간에 따라 '점'이라는 재화를 받을 수 있다. 점을 앱 내에서 포인트(코인)로 교환해 기프트카드, 커피·아이스크림 쿠폰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를 하지 않더라도 플레이어를 통해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플레이어 내에는 4,000여 개 게임이 입점되어 있으며, 800만 건 이상의 게임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플레이어는 2021년 1월 출시된 후 지난해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플레이어의 목표는 게이머들에게는 경제적·사회적 리워드 혜택을 통해 더 풍성한 경험을 제공하고, 게임사에는 300만 유저의 플레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가장 찰떡 맞는 유저에게 게임을 광고해 성과 및 다운로드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지엔에이컴퍼니는 한국에서 시작된 플레이어를 전 세계 게이머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 및 홍보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진출에 이어 대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300만 게이머가 선택한
플레이어와 함께 시작하세요



빠른 출시 니즈에 최적화된 마케팅을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 플랫폼입니다.
남다른 다양한 게이머들이 선택한 플레이어는 당신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입점 게임 수	플레이어 유저들의 누적 액티브	게임 누적 다운로드 수
4,778	3,437,724,615	5,221,363

IBK항공
대전

배터리 효율화 서비스 플랫폼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기 배터리 시장도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충전용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배터플라이는 전기배터리의 효율적인 리사이클을 위해 배터리 기반의 e-모빌리티 증가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배터리 안전 관제, 사용 시간 증대, 재사용성 제고를 위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배터플라이는 LCA 기반 배터리 관리 방법, 서버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고, 그 결과 EV 배터리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배터리 관리 및 평가가 가능해졌다. 또 전기차 및 E모빌리티 배터리의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를 수집 후 관리하고 상태와 효율을 분석해 잔존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사람과 환경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배터리 운영 데이터 분석, 전기차 관제 및 전기차 탄소배출 관리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대기업과 물류센터에 이동형 로봇에 대한 기술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배터리 안전 관제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롤스로이스는 지금까지 생산된 차의 80%가 도로위에 있습니다.

배터플라이는 생산된 배터리의 80%가 수명 연장과 n차 사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잉~~~

모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남들보다 유난히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이 있다. 모기가 유독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

모기는 후각이 매우 발달해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땀의 주성분인 젖산, 암모니아 냄새를 잘 맡는다. 사람의 호흡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10m 밖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모기는 발이나 얼굴 쪽으로 잘 몰려든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임신부나 신진대사가 활발한 어린아이들이 모기에 유독 잘 물린다.

비만한 사람

모기는 후각이 발달해 멀리서도 땀 속의 젖산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 체내 지방이 많은 사람이 모기에 잘 물리는 이유도 이 냄새 때문이다. 지방이 많은 사람은 혈중 지방 농도가 높아 땀에 지방이 섞여 배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독특한 냄새를 모기가 유독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마신 사람

술을 마신 사람이 안 마신 사람보다 모기에 더 잘 물린다. 이는 체내에 흡수된 술이 분해되며 생기는 요산과 암모니아를 모기가 감지하기 때문이다. 또 술을 마시면 기초 체온이 올라가 젖산을 비롯한 휘발성 화합물을 더 많이 발산해 모기의 표적이 되기 쉽다.

향수를 뿌린 사람

깨끗하게 씻었음에도 모기에 잘 물린다면 사용한 세정제나 향수를 점검해보자. 모기는 꽃의 꿀샘에서 나오는 꿀도 먹이로 삼기 때문에 꽃향이 나는 향수는 모기를 끌어들이는 요인이 된다. 한편, 코코넛 오일에 포함된 특정 지방산은 모기를 포함한 곤충을 쫓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모기에서 멀어지고 싶다면 코코넛 향 비누를 사용해보자.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

플로리다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모기는 시력이 약해 1m 이내의 근접한 물체만 구분할 수 있지만 검정, 남색, 빨간색 등 진하고 어두운 색상을 선호한다고 한다. 따라서 모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밝고 명도가 높은 색상의 옷을 선택하고, 부드러운 재질을 입는 것이 좋다.

Tip! 모기 물렸을 때 확실한 대처법



고온에서 모기의 침이 분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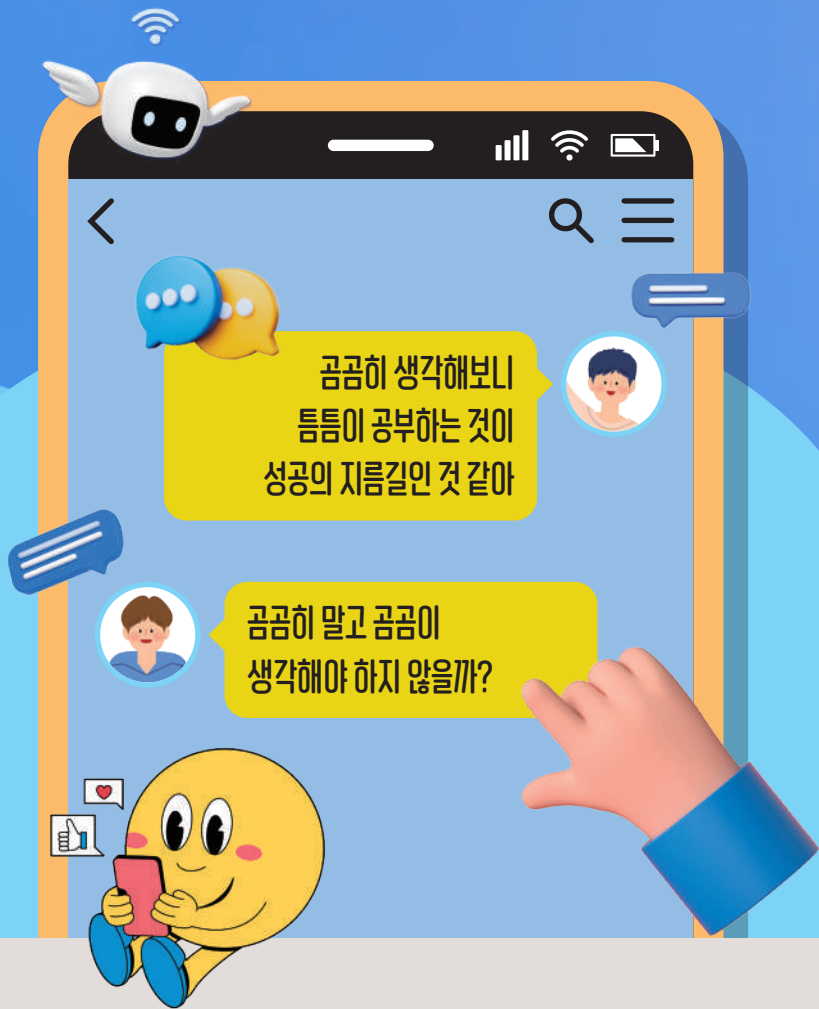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히스타민 분비가 억제됨



모기의 체액이 산성이므로 가려움증이 완화됨

지금 그 자리엔 “히”가 아닌 “이”를 넣어야 해요

쓸 때마다 헛갈리는 단어들 많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곰곰이’와 ‘곰곰히’다.
‘곰곰’까지 쓰다 멈칫하고 포털사이트에 검색하기를 반복한 경험이 있다면
이 글에 집중해보자.



곰곰히 생각해보니
툼툼이 공부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인 것 같아

곰곰히 말고 곰곰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곰곰이 무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곰곰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하지만 ‘곰곰히’와 ‘곰곰이’가 헛갈려 문자를 썼다 지웠다 반복한 적 있을 것이다. ‘곰곰이’는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의 뜻을 가진 부사로, 부사의 원형을 밝혀야 한다는 한글 맞춤법 제25항에 따라 ‘곰곰이’로 적어야 한다.

툼툼이 VS **툼툼히** 우리는 ‘툼툼이’ 보다 ‘툼툼히’라고 더 많이 발음한다. 하지만 부사인 ‘툼툼이’는 ‘곰곰이’와 마찬가지로 한글 맞춤법 제25항에 따라 ‘툼툼이’로 적어야 한다. 만약 ‘-이’와 ‘-히’의 사용법이 헛갈린다면 ‘툼툼-’ 뒤에 ‘-하다’를 붙여보자. 자연스럽게 ‘-히’를 붙이고, 말이 되지 않으면 ‘-이’를 붙여 쓰면 된다.

일일히 VS **일일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 중 하나인 ‘일일히’는 ‘일일이’의 옛말이다. 하지만 ‘일일이’가 올바른 표현이므로 외워두는 것이 좋다. 만약 그 원리가 궁금하다면, ‘일일이’는 끝음절이 ‘이’로만 발음되므로 한글 맞춤법 제51항에 따라 ‘이’로 적는다는 것을 알아두자. 그래도 ‘-이’와 ‘-히’의 사용 구분이 어렵다면 첩어나 준첩어인 명사 뒤에서 ‘히’가 아닌 ‘이’를 쓴다는 점을 잊지 말자.

깨끗히 VS **깨끗이** 평소 ‘깨끗하게’,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에 ‘깨끗이’ 대신 ‘깨끗히’로 적는 사람들이 많다. 또 ‘깨끗-’이라는 어근 뒤에 ‘-하다’를 붙이면 ‘깨끗하다’로 완벽한 동사가 되기에 ‘-히’를 붙여야 할 것 같다. 하지만, ‘ㅅ’ 받침 뒤에 ‘-이’를 쓴다는 규칙성에 따라 ‘-히’가 아닌 ‘-이’를 붙여주는 것이 맞다.

따뜻이 VS **따뜻히** 부사화 접미사인 ‘이’와 ‘히’는 흔히 발음으로 구분되는데, 부사의 끝음절이 [이]로 발음될 경우엔, ‘-이’를 덧붙여야 한다. ‘따뜻이’의 발음표기는 [따뜨시]로 ‘-이’를 붙여 ‘따뜻이’로 적어야 한다. 한편, ‘따뜻이’는 ‘따뜻이’로도 쓰이는데 둘 다 표준어임으로 상황에 맞는 단어를 선택해 사용하면 언어 표현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도시동심(都市童心),

김우진의 유토피아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잊고, 잃어버린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동심. 나이 들에 따라 사라져버린 동심을 찾기 위해, IBK기업은행이 올해 첫 번째 전시회를 열었다.



都市童心

김우진의 색채와 조각으로 만나는 유토피아

한국 미술계를 이끌어 갈 신진작가 지원을 위해 IBK 기업은행 사회공헌부에서 <IBK 아트 스테이션>을 기획했다. 올해는 IBK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전시회가 열리며, 설치 및 조각 신진작가들이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 선정된 작가는 총 4명으로, 김우진 작가를 시작으로 조현서, 최성임, 윤일권 작가가 차례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전시회의 포문을 연 김우진 작가는 《도시동심(都市童心)》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 뜨거운 호응 속 8월 2일까지 전시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동물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김우진 작가는 동물과 자연이 주는 정서적 힘에 주목해 실험적이고 실천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를 이해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동심’과 ‘유토피아’로, 작가는 아이들의 천진함에서 많은 영감을 받는다고 하며, 본인의 작품이 잠시 잊고 지냈던 내면의 동심을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우진의 작품세계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자. 다채로운 색감으

로 이루어진 스테인리스 유닛은 김우진의 손끝에서 동물 형상으로 변모한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스테인리스에서 작가는 인간의 이기심과 환경 변화로 인해 설 자리를 잃은 동물들의 존재를 발견했다. 이에 김우진 작가는 동물들의 유토피아를 지켜주고자 하는 자신의 꿈을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원색의 조화는 김우진의 조각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컬러다. 각각의 유닛은 빨강, 파랑, 노랑, 검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치 몸을 이루는 세포처럼 유닛은 현재를 이루는 과거의 기억을 표상한다. 선명한 색채와 대조적으로 유닛의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검은색 터치는 삶의 역경과 고난을 상징한다. 김우진은 원색을 주로 사용하지만, 이번 전시에서 소개된 신작 <Deer> 등에서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크레파스나 색연필에서 영감을 받아 파스텔톤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이처럼 감각적인 색감은 관람자에게 경쾌하고 즐거운 감정을 전달함과 동시에 삶의 많은 흔적과 온도를 투영한다.



01

‘IBK개인입출통장’ 및 ‘머니박스’ 출시

고금리 파킹금고 ‘머니박스’가 포함된 ‘IBK개인입출통장’을 출시했다. ‘IBK개인입출통장’은 개인고객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체·출금수수료 등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입출식 통장이다. ‘머니박스’는 ‘IBK개인입출통장’과 연결된 계좌 속 파킹금고로, 여윌돈을 잠시 맡겨둘 수 있다. 입금 한도는 2천만 원이며 하루만 맡겨도 연 최고 3%의 금리를 제공한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p이며 전월 ‘IBK개인입출통장’에 ▲급여이체 실적 ▲연금수급 실적 ▲카드 및 간편결제(Pay) 결제 대금 출금 실적 중 한 가지 실적만 있어도 우대금리 연 1%p를 제공한다.



02

호국장학재단과 장학금 기부 협약 체결

국방부에서 호국장학재단과 장학금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2024년부터 3년간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후원한다. 호국장학재단은 기부된 장학금을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대학생 자녀 중 배려대상자(다자녀, 한부모자녀 등)와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김성태 은행장은 “장학금 기부를 통해 군인 자녀들은 안정적으로 학업에 몰두하고 군인들 역시 본연의 임무인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군 초급간부 연수 지원,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및 창업 등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3

‘사기의심계좌 자동검증’ 서비스 시행

개인 모바일뱅킹에서 ‘사기의심계좌 자동검증’ 서비스를 시행한다. 해당 서비스는 i-ONE Bank에서 계좌 이체 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수취 계좌의 사기 신고 이력을 조회해 금융 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다. 기업은행은 지난 4월부터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쉬운뱅킹’ 서비스에 해당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그 결과, 월 평균 사기계좌 탐지 건수가 약 6배 증가하는 등 사기피해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2017년부터 ‘사기의심계좌 사전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행은 지난 3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한 성과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의 위탁테스트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04

집중호우피해 소상공인·중기 긴급금융 지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기업은행은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 범위에서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p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 기존 여신의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 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기업은행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05

하반기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 실시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김성태 은행장의 ‘공정하고 공감하는 인사’ 원칙과 ‘중기금융 및 IT·디지털 경쟁력’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금차 정기인사에는 신입 부행장 3명, 선임 본부장 11명 선임을 포함 2,036명이 승진·이동했다. 신입 부행장에는 김학필 강동지역본부장을 리스크관리그룹장, 백상현 경기남부 본부장을 카드사업그룹장 겸 연금사업그룹장, 정성진 검사본부장을 글로벌·자금시장그룹장으로 선임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김성태 은행장은 “IT·디지털 경쟁력 및 현장 영업력 강화로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가치금융의 성과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김학필 부행장, 백상현 부행장, 정성진 부행장

06

전국 영업점장 회의 개최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해 온 김성태 은행장의 뜻에 따라, 경영진들이 직접 지역본부를 찾아 전략 방향을 논의하고 각 지역의 현안들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이날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서부지역본부를 찾은 김 행장은 지난 상반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 영업점장들을 격려하며,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후 회의를 통해 하반기 중점 추진 부문으로 균형성장 기반 확충, 철저한 여신건전성 관리, 고객신뢰 최우선 경영 등을 제시했다.



다른 그림 찾기

IBK EVENT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다른 그림 찾기!
우리의 뇌를 깨워볼까요?




위의 두 이미지에서 서로 다른 5곳을 찾아보세요.
랜덤 추첨을 통해 선정된 5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려요!



참여 기간 2024년 8월 1일~8월 20일

참여 방법 QR코드로 로그인해 다른 곳을 표시한 사진과 개인 정보 전송 혹은 제일 뒷장에 있는 엽서에 적어서 발송

당첨자 발표 2024년 8월 26일

다른 그림 찾기 당첨자 발표!



윤○지(6**9) 권○윤(9**3) 한○완(3**1)
오○정(5**5) 조○용(3**0)

**당첨되신 분들
축하합니다!**



<with IBK> '표지 캐릭터' 4개를 찾아라!

다른 그림 찾기보다 숨은 그림 찾기에 자신 있는 분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참여 기간 : 2024년 8월 1일~8월 20일

참여 방법 : 왼쪽 QR코드로 촬영 사진 전송

당첨자 발표 : 2024년 8월 26일

**<with IBK> 에서
'표지 캐릭터' 4개를 찾아라!**

IBK기업은행의 매거진 <with IBK>는
호별 다양한 이야기로 독자분들을 찾아갑니다.
올해는 표지에 개성 넘치는 독특한 캐릭터들로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with IBK> 8월호 속에 숨어 있는 '표지 캐릭터'를 발견해보세요!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힌트: 정답 4곳_표지 및 해당 페이지 제외)

참여방법
STEP1. <with IBK>에 숨어 있는 표지 캐릭터를 찾아주세요!
(총 4곳, 표지 및 해당 페이지 제외)
STEP2. 캐릭터를 찾은 후 카메라로 촬영해주세요.
STEP3. 상단 QR코드 접속 후, 사진을 업로드해주세요.

뒷면에
여행준비를 체크리스트가
숨어 있습니다.



하루가 켜켜이 쌓이면
한 달이 되고, 일 년이 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공간을 채우는 요소가 달라지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세요.
스스로를 잘 보듬고 챙기셨나요?**

힘들고 지치더라도 시선이 닿는 자리에
자신만의 고유한 눈짓과 리듬을 보낸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곧게 뻗은 숲 처럼 울창해질 겁니다.



떠나요~ 어디든♪♪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여행준비물 체크리스트!

여름휴가의 계절 8월입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은 어디로 떠나시나요?
여행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여행 필수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준비된 목록은 ✓ 표시!

정리 편집실

국내여행편

필수준비물



- 지갑
- 핸드폰 충전기
- 보조배터리
- 카메라
- 휴대용 티슈
- 삼단우산

세면도구



- 스킨/로션
- 선크림
- 치약/칫솔
- 클렌징오일/클렌징폼
- 드라이기
- 머리끈

의류



- 상의/하의
- 잠옷/트레이닝복
- 속옷/양말
- 선글라스
- 모자

의약품



- 연고/밴드
- 진통제
- 지사제
- 소화제
- 안약
- 복용약
- 안경/렌즈

물놀이용품



- 수영복/수영모
- 수경
- 튜브
- 아쿠아슈즈
- 쿨토시

기타



- 비닐봉투
- 지퍼백
- 돛자리
- 물/음료수
- 간식

해외여행편

필수준비물



- 여권(사본)
- 항공권
- 신분증
- 해외 결제 신용카드
- 숙소바우처&E티켓
- 현지 화폐
- 여행자보험
- 국제운전면허증

기내 및 물놀이용품



- 목베개
- 수면안대
- 귀마개
- 방수팩
- 튜브
- 비치타올
- 선크림

의류



- 상의/하의
- 잠옷/트레이닝복
- 속옷/양말
- 수영복/수영모
- 아쿠아슈즈
- 선글라스
- 모자
- 운동화

의약품



- 연고/밴드
- 모기 기피제
- 지사제
- 소화제
- 종합감기약
- 항공성 중이염약
- 복용약
- 안경/렌즈

전자기기



- 해외 유심
- 포켓와이파이
- 멀티어댑터
- 보조배터리
- 충전기
- 메모리카드
- 카메라/고프로

기타



- 삼단우산
- 손톱 깎기
- 지퍼백
- 필터 샤워기
- 한국 음식 (컵라면, 고추장 등)

짐 싸기 간단 TIP | • 옷은 돌돌 말아서 • 파우치를 이용해 간편하게 정리 • 가져갈까 말까할 땐 과감하게 패스 • 깨지기 쉬운 물건은 옷 틈새에





IBK기업은행

한 발의 총성 꿈을 향한 올림픽

땀으로 빛어낸 한 발의 총성이
승리의 함성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사격 국가대표 선수들의 도전에
IBK기업은행이 함께하겠습니다



10M 공기권총 국가대표
IBK사격단 오예진 선수

25M 속사권총 국가대표
IBK사격단 송종호 선수

대한사격연맹 사진 제공

63

IBK 창립 63주년



<with IBK>는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재생필프 함유 및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한 대표 친환경 고급 인쇄 용지인 인스퍼 예코를 표지로 사용한 친환경 제작물입니다.